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주요 정책 시계열조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2차 조사 결과보고서(일반국민)

2019년 11월

현대리서치컨설팅

2019년 주요 정책 시계열조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2차)
조사 결과 보고서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구분	6월 조사(1차)	10월 조사(2차)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표본 규모	2,000명	1,145명(표본유지율 57.3%)
표본 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2%p	95% 신뢰구간에서 ±3.1%p
표본추출방법	2019년 4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1차 조사에 참여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자료수집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가중치 부여	-	2019년 10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
조사 도구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 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for win으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19.06.17. ~ 2019.06.21.	2019.10.29. ~ 2019.11.04.
조사 기관	(주)현대리서치컨설팅	

2. 자료 해석 시 유의사항

- 그래프 · 도표 · 교차분석표 내의 숫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조사 내용

- 2019년 6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일부 동일한 문항을 조사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r>
<tr><td colspan="2">응답자 특성</td><td>- 성, 연령, 지역, 직업,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 자녀유무, 개인/가구 소득, 주거형태, 정치이념성향
-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직장규모
- (근로자 기준) 1주일 기준 실제/적정 근로시간(연장/휴일근로 포함)</td></tr>
<tr><td colspan="2">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td><td>- 일과 개인/가정생활의 중요도
- 우리 사회의 근로시간 수준에 대한 인식
- 임금(소득)/자유 시간 중 선호도
-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td></tr>
<tr><td rowspan="2">노동시간 단축 실태</td><td>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td><td>-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인지도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도움 여부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여부 및 미시행 이유
- ‘야·특근 수당’과 ‘일과 삶의 균형’ 중 선호도
- 사업체 규모별 노동시간 단축 시행 및 시행시기 인지도</td></tr>
<tr><td>제도 시행 후의 변화</td><td>- (노동시간 단축 시행 사업장 근로자 대상) 실제 노동시간의 변화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 활용
- 삶의 질의 변화 및 좋아진/나빠진 이유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변화</td></tr>
<tr><td colspan="2">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의견</td><td>-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 시의 사회·경제적 변화
- 특례유지업종에 대한 의견
-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대한 의견
-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
-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추진 지원 정책</td></tr>
</table>

4. 응답자 특성

가. 전체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구성비(%)	가중치(명)	가중치(%)
전체		**(1,145)**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607)	53.0	(508)	50.8
	여성	(538)	47.0	(492)	49.2
연령	19~29세	(193)	16.9	(194)	19.4
	30~39세	(213)	18.6	(191)	19.1
	40~49세	(244)	21.3	(218)	21.8
	50~59세	(303)	26.5	(235)	23.5
	60세 이상	(192)	16.8	(162)	16.2
지역	서울	(221)	19.3	(194)	19.4
	인천/경기	(362)	31.6	(315)	31.5
	대전/세종/충청	(118)	10.3	(106)	10.6
	광주/전라	(99)	8.6	(94)	9.4
	대구/경북	(114)	10.0	(96)	9.6
	부산/울산/경남	(181)	15.8	(154)	15.4
	강원/제주	(50)	4.4	(41)	4.1
학력	고등학교 졸업	(245)	21.4	(214)	21.4
	대학교 졸업	(793)	69.3	(694)	69.4
	대학원 재학 이상	(107)	9.3	(92)	9.2
직업	농/임/어업	(12)	1.0	(11)	1.1
	자영업	(81)	7.1	(66)	6.6
	판매/영업/서비스직	(74)	6.5	(65)	6.5
	생산/기능/노무직	(86)	7.5	(71)	7.1
	사무/관리/전문직	(556)	48.6	(482)	48.2
	전업주부	(183)	16.0	(160)	16.0
	학생	(52)	4.5	(54)	5.4
	무직/퇴직/기타	(101)	8.8	(92)	9.2

응답자 특성(계속)

		사례수(명)	구성비(%)	가중치(명)	가중치(%)
전체		**(1,145)**	**100.0**	**(1,0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	(588)	51.4	(505)	50.5
	비정규직	(86)	7.5	(78)	7.8
	해당 없음	(471)	41.1	(416)	41.6
직장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200)	17.5	(176)	25.3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25)	19.7	(190)	27.3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35)	20.5	(204)	29.3
	5인 미만 사업장	(149)	13.0	(126)	18.1
노동시간단축 시행여부	시행하고 있음	(145)	12.7	(125)	12.5
	시행하지 않음	(33)	2.9	(30)	3.0
	잘 모름	(22)	1.9	(21)	2.1
	해당 없음	(945)	82.5	(824)	82.4
월급여수준	200만원 이하	(312)	27.2	(281)	28.1
	201~300만원 이하	(277)	24.2	(246)	24.6
	301~400만원 이하	(210)	18.3	(179)	17.9
	401~500만원 이하	(140)	12.2	(119)	11.9
	501~600만원 이하	(79)	6.9	(65)	6.5
	601만원 이상	(100)	8.7	(84)	8.4
	무응답	(27)	2.4	(25)	2.5
월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98)	8.6	(83)	8.3
	201~300만원 이하	(160)	14.0	(148)	14.8
	301~400만원 이하	(202)	17.6	(177)	17.7
	401~500만원 이하	(183)	16.0	(162)	16.2
	501~600만원 이하	(155)	13.5	(133)	13.3
	601만원 이상	(347)	30.3	(298)	29.8

응답자 특성(계속)

		사례수(명)	구성비(%)	가중치(명)	가중치(%)
전체		**(1,145)**	**100.0**	**(1,000)**	**100.0**
혼인상태	미혼	(374)	32.7	(349)	34.9
	기혼유배우	(729)	63.7	(618)	61.8
	기타	(42)	3.7	(33)	3.3
맞벌이여부	맞벌이	(335)	29.3	(283)	28.3
	외벌이	(394)	34.4	(335)	33.5
	해당 없음	(416)	36.3	(382)	38.2
자녀유무	자녀 있음	(671)	58.6	(565)	56.5
	자녀 없음	(58)	5.1	(52)	5.2
	해당 없음	(416)	36.3	(382)	38.2
주거형태	자가	(797)	69.6	(697)	69.7
	전세	(203)	17.7	(177)	17.7
	월세(반전세 포함)	(119)	10.4	(102)	10.2
	사글세	(2)	0.2	(2)	0.2
	무상 및 기타	(24)	2.1	(22)	2.2
이념성향	진보	(399)	34.8	(351)	35.1
	중도	(511)	44.6	(451)	45.1
	보수	(235)	20.5	(198)	19.8

제2장 주요 결과 요약

1.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2.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3.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주요 결과 요약

1.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과 '개인 또는 가정생활'에서 '둘 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또는 가정생활'(37.4%)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일'(7.0%)보다는 월등히 많았음.

- 우리 사회의 일하는 수준은 '많다'(52.0%)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적정한 수준'(40.2%), '적다'(7.8%) 순임.
- '임금이 줄어도 자유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응답이 41.1%로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느는 게 좋다'(32.7%)는 응답보다 많았음.

○ 직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는, 일자리 안정성(61.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소득'(43.4%), '일-생활 균형'(31.1%), '나의 적성'(23.4%) 등의 순으로 응답함(중복응답).

- 안정성, 소득, 발전 가능성 등 직업의 '외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응답이 전체의 67.6%(백분율)로 일-생활 균형, 적성, 재미 등 '내재적 가치'(32.4%)를 추구하는 응답보다 많음.

○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6.7%로 부정평가(48.2%)와 비슷하며, 1차 조사 대비 5.0%p 하락함.

- 도움이 되었다: 51.7%('19.06.) → 48.2%('19.10.)
- 도움이 되지 않았다: 42.9%('19.06.) → 46.7%('19.10.)

○ 현재 제도가 시행중인 '300인 이상 사업체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60.0%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야근 및 특근 수당'과 '일과 삶의 균형' 중에 선택한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택하겠다는 쪽이 69.1%로 높게 나타남('야근 및 특근 수당' 25.0%).

2.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98.3%로 나타남('잘 알고 있다' 62.8%, '들어보았다' 35.5%).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근무자의 70.8%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시행하지 않는다' 17.3%, '잘 모름' 11.9%.

- 시행하고 있다: 79.8%('19.06.) → 70.8%('19.10.)
- 시행하지 않고 있다: 13.5%('19.06.) → 17.3%('19.10.)
-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42.6%로 가장 많았고, '업무가 많아서'가 29.1%, '이유를 모른다'는 응답이 20.7%임.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98.3%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함('잘 안다' 77.8%, '들어보았다' 20.5%).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96.3%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함('잘 안다' 57.2%, '들어보았다' 39.1%).

※ 50인 이상 300인 미만: 96.0%('19.06.) → 98.3%('19.10.)

※ 5인 이상 50인 미만: 76.1%('19.06.) → 96.3%('19.10.)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사업장 근로자의 47.0%가 노동시간이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응답함(많이 9.6%, 다소 37.4%). '큰 변화 없다' 51.6%, '늘어남' 1.4%.

- 늘어난 여가시간은 '휴식'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함께 보냄' 49.9%, '문화/취미 활동' 28.8%, '건강증진' 24.5% 등으로 응답함(중복응답).
- '휴식(가정생활 등)'이 전체의 64.0%(백분율), '여가의 적극적 활용(문화 활동 등)'이 23.2%, '추가노동(가사, 육아, 투잡 등)'이 11.8%로 분류됨.

○ 여가시간에 문화, 취미 등의 활동한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50.8%가 '여행 및 관광'을 한다고 응답함.

-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47.3%), '스포츠 관람 및 참여'(38.4%), '자기계발'(26.8%), '취미·오락'(23.4%), '사회활동'(13.3%) 순임(중복응답).
- 반면, 여가활동을 못하는 이유는 '금전적 문제'가 42.6%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28.1%), '집안일 때문에'(21.9%) 순임.

○ 제도 시행 근로자의 34.2%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함. ‘차이 없음’ 58.3%, ‘나빠짐’ 7.5%.

- 지난 1차(6월) 조사 결과 대비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많아짐(좋아짐 36.8%, 차이 없음 53.1%, 나빠짐 10.1%)
- 좋아진 이유로는 ‘취미활동 시간이 늘어서’가 42.9%,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40.6%), ‘근무시간 효율성 증가’(16.5%) 순으로 응답함.
- 나빠진 이유로는 ‘임금 감소’가 81.4%로 가장 많음. ‘노동 강도가 강화됨’ 9.3%. ‘비공식 야근 등’ 9.3%.

○ 제도 시행 후 ‘불필요한 야근이 줄어들었다’(78.3%), ‘업무시간에 더 집중하고 있다’(74.8%),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32.8%)고 응답함.

- 반면에 ‘급여가 줄고’(54.0%), ‘실질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54.5%), ‘인력은 같으나 근무시간이 줄어 일이 더 어려워졌다’(61.4%)는 부작용이 나타남.

3.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탄력근무제 등 도입 증대’(76.5%), ‘쇼핑, 여가 등 관련 산업 성장’(72.7%), ‘여가시간 증대 및 삶의 질 개선’(68.5%),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59.1%), ‘노동 생산성 향상’(55.2%), ‘기업 일손 부족’(52.8%) 의견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음.

- 반면에 ‘일자리 증대’(64.1%) ‘여성 경제 활동 참여 늘어남’(53.3%) 의견은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음.

○ 특례업종 제도에 관해서는 현행보다 ‘특례업종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대로 ‘5개 업종 유지’ 의견이 24.6%, ‘특례업종 폐지’ 의견은 17.2%로 나타남.

- 6월 조사 결과 대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을 추가해서 특례업종을 늘려야 한다’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개선을 위해 5개 특례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3%p, 1.4%p 상승함.

○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계획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27.6%, '계획보다 이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19.1%로 나타남.

○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이 50.9%, '일터 생산성 향상'(48.4%),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6.7%),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33.8%),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28.8%) 등의 순으로 응답함(중복응답).

○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일자리 매칭 서비스'(24.7%), '기업에 인건비 지원'(18.8%), '유연 근로시간제도 개선'(18.5%), '특례제외 업종 등 어려운 업종 지원'(16.6%), '조기단축 기업 우대 정책'(12.0%), '근무형태 개선 컨설팅 지원'(9.4%) 순으로 응답함.

제3장 조사결과 분석

1.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가. 일과 개인/가정생활 중요도에 대한 인식

- 일과 개인/가정생활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또는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37.4%,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7.0%임.
-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응답이 55.6%임.
- '18년 10월 조사 이후 '개인 또는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증가 추세임.

※ 31.5%('18.10.) → 32.9%('18.12.) → 35.6%('19.06.) → 37.4%('19.10.)

<그림 3-1> 일과 개인/가정생활 중요도에 대한 인식

Base : 전체, 단위: %

N = 1,515명('18.08.) - 1,269명('18.10.) - 1,027명('18.12.) - 2,000명('19.06.) - 1,145명('19.10.)

응답자 특성

- 남성(7.4%)은 여성(6.7%)에 비해 '일이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고, 여성(38.0%)은 남성(36.7%)보다 '개인 또는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 또는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음.
- '자영업'과 '판매/영업/서비스직',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는 타 직업 종사자에 비해 '일이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고, '개인 또는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낮음.

<표 3-1> 일과 개인/가정생활 중요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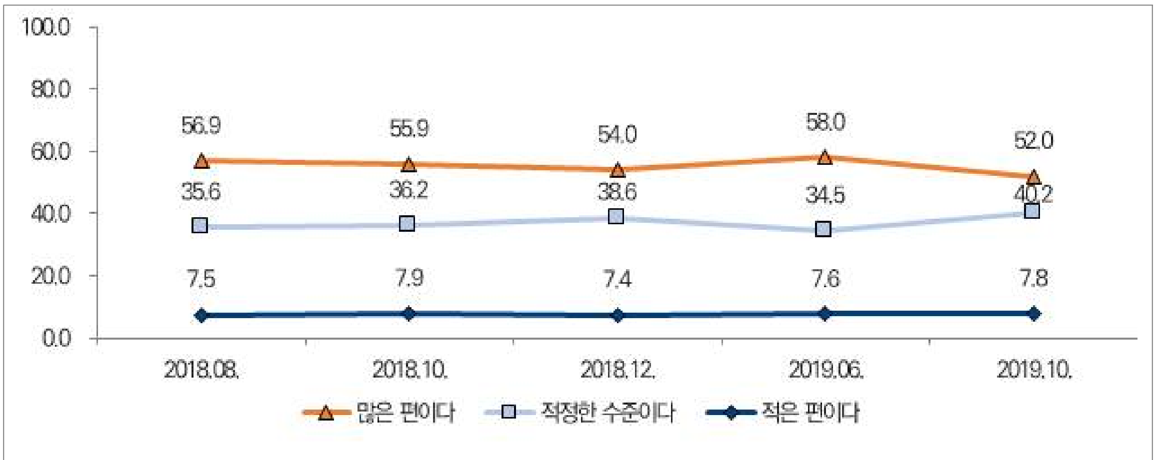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일이 더 중요함	개인/가정생활이 더 중요함	둘 다 비슷함
전체		**(1,145)**	**7.0**	**37.4**	**55.6**
성별	남성	(607)	7.4	36.7	55.9
	여성	(538)	6.7	38.0	55.3
연령	19~29세	(193)	12.0	48.9	39.2
	30~39세	(213)	5.7	45.9	48.3
	40~49세	(244)	4.9	40.5	54.6
	50~59세	(303)	6.0	28.0	65.9
	60세 이상	(192)	7.1	22.8	70.1
거주 지역	서울	(221)	7.3	39.7	53.0
	인천/경기	(362)	7.9	39.3	52.8
	대전/세종/충청	(118)	3.0	36.2	60.8
	광주/전라	(99)	8.5	33.8	57.7
	대구/경북	(114)	3.7	36.4	59.9
	부산/울산/경남	(181)	8.9	34.3	56.8
	강원/제주	(50)	7.0	36.1	56.9
직업	농/임/어업	(12)	0.0	57.4	42.6
	자영업	(81)	14.0	31.5	54.4
	판매/영업/서비스직	(74)	10.9	30.1	59.0
	생산/기능/노무직	(86)	11.4	29.8	58.7
	사무/관리/전문직	(556)	4.8	39.7	55.5
	전업주부	(183)	7.0	35.4	57.7
	학생	(52)	19.7	45.4	34.9
	무직/퇴직/기타	(101)	1.1	36.6	62.3

나.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 수준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 수준에 대해 52.0%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함. '적정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40.2%이며, '적은 편'이라는 응답은 7.8%임.
- '19년 6월 조사 대비 노동시간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5.7%p(34.5% → 40.2%) 상승함.

<그림 3-2>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 수준에 대한 인식



Base :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

- ‘여성’(57.0%)이 ‘남성’(47.1%)에 비해 ‘노동시간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함.
-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많다’는 비율이 높음.

<표 3-2>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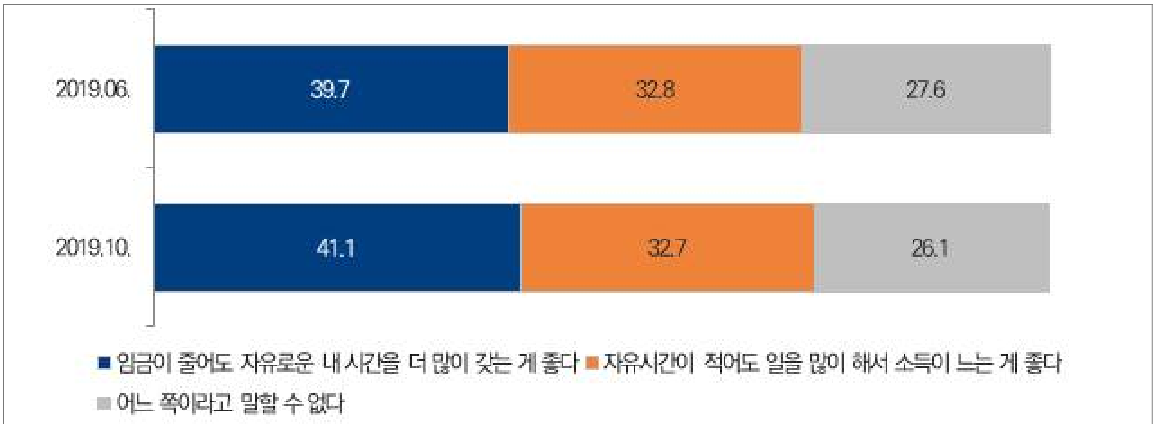
		사례수	적은 편	적정한 수준	많은 편
전체		**(1,145)**	**7.8**	**40.2**	**52.0**
성별	남성	(607)	9.9	43.0	47.1
	여성	(538)	5.6	37.4	57.0
연령	19~29세	(193)	4.8	26.6	68.5
	30~39세	(213)	5.7	35.9	58.4
	40~49세	(244)	3.3	42.3	54.4
	50~59세	(303)	9.1	46.4	44.5
	60세 이상	(192)	17.9	49.9	32.2
거주 지역	서울	(221)	6.0	38.9	55.1
	인천/경기	(362)	7.0	39.0	54.0
	대전/세종/충청	(118)	8.3	39.7	52.0
	광주/전라	(99)	5.3	46.9	47.8
	대구/경북	(114)	9.6	38.8	51.5
	부산/울산/경남	(181)	12.0	40.8	47.2
	강원/제주	(50)	6.3	42.7	51.0
직업	농/임/어업	(12)	18.5	45.8	35.7
	자영업	(81)	23.4	39.3	37.3
	판매/영업/서비스직	(74)	5.7	46.4	47.9
	생산/기능/노무직	(86)	7.9	45.3	46.8
	사무/관리/전문직	(556)	6.3	45.5	48.2
	전업주부	(183)	6.8	36.3	56.9
	학생	(52)	5.7	11.6	82.6
	무직/퇴직/기타	(101)	7.4	27.8	64.8

다. 소득과 자유 시간에 대한 인식

- ‘일을 통한 소득’과 ‘개인의 자유 시간’에 대한 선호를 물은 결과, ‘임금이 줄어도 자유로운 내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좋다’는 응답이 41.1%이며, ‘자유 시간이 적어도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느는 게 좋다’는 응답은 32.7%,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26.1%임.
- ’19년 1차(6월) 조사 대비 ‘자유 시간’에 대한 선호 응답이 3.4%p 상승함.

※ 39.7%(’19.06.) → 41.1%(’19.10.)

<그림 3-3> 소득과 자유 시간에 대한 인식



N = 2,000명(’19.06.) - 1,145명(’19.10.), 단위: %

응답자 특성

- 40대 이하에서는 '임금이 줄어도 개인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자유시간이 적어도 소득이 느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높음.
- '생산/기능/노무직'(50.7%)과 '자영업'(46.0%), '판매/영업/서비스직'(41.9%) 종사자는 '소득이 느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높고, 그 외 직업의 종사자들은 '개인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높음.

<표 3-3> 소득과 자유 시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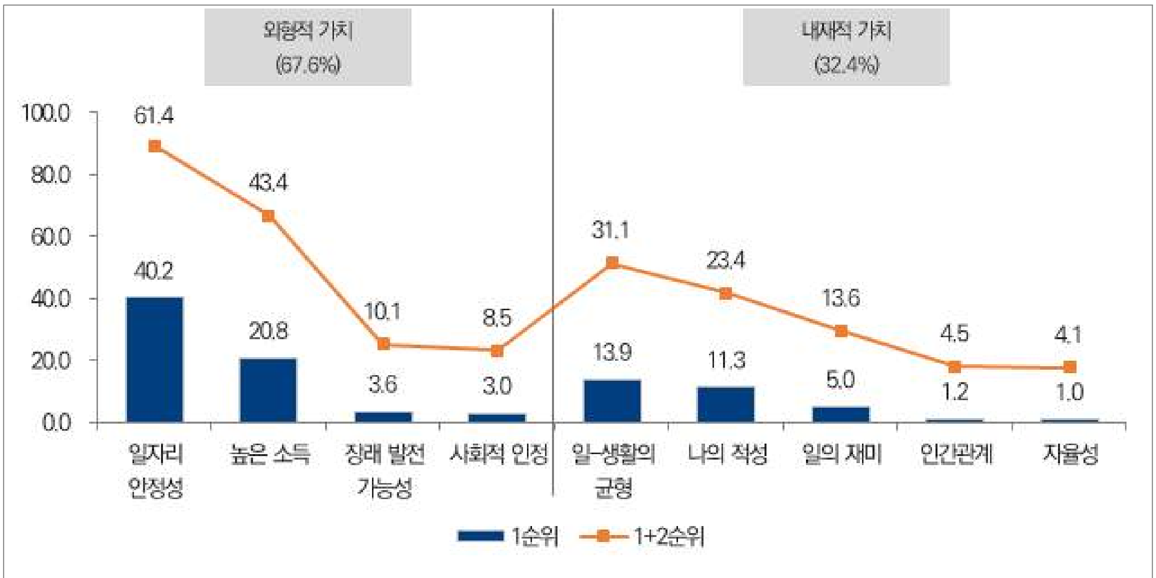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임금이 줄어도 개인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자유시간이 적어도 소득이 느는 것이 좋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음
전체		**(1,145)**	**41.1**	**32.7**	**26.1**
성별	남성	(607)	35.9	39.1	25.0
	여성	(538)	46.5	26.2	27.3
연령	19~29세	(193)	45.6	23.5	30.9
	30~39세	(213)	41.6	21.7	36.7
	40~49세	(244)	48.0	29.6	22.3
	50~59세	(303)	35.3	41.9	22.8
	60세 이상	(192)	34.6	47.7	17.7
거주지역	서울	(221)	45.7	30.4	23.8
	인천/경기	(362)	43.3	33.1	23.6
	대전/세종/충청	(118)	32.8	35.5	31.7
	광주/전라	(99)	47.8	32.2	20.0
	대구/경북	(114)	35.9	33.0	31.1
	부산/울산/경남	(181)	35.0	35.2	29.8
	강원/제주	(50)	44.9	24.7	30.4
직업	농/임/어업	(12)	47.1	46.7	6.2
	자영업	(81)	27.1	46.0	26.9
	판매/영업/서비스직	(74)	40.4	41.9	17.7
	생산/기능/노무직	(86)	32.6	50.7	16.8
	사무/관리/전문직	(556)	41.4	30.7	28.0
	전업주부	(183)	38.9	30.8	30.3
	학생	(52)	53.8	22.3	23.9
	무직/퇴직/기타	(101)	53.0	21.6	25.4

라.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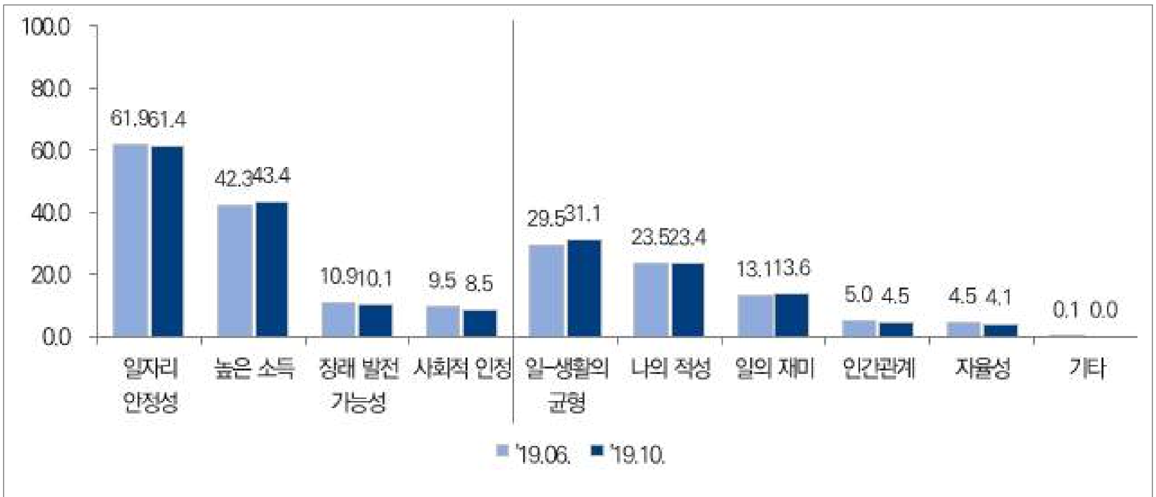
-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일자리 안정성'(61.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높은 소득'(43.4%), '일-생활의 균형'(31.1%), '나의 적성'(23.4%), '일의 재미'(13.6%), '장래 발전 가능성'(10.1%), '사회적 인정'(8.5%), '인간관계'(4.5%), '자율성'(4.1%) 순으로 응답함.
- '일자리 안정성, 소득' 등 직업의 외향적 가치(67.6%)를 '워라밸, 적성, 일의 재미' 등 내재적 가치(32.4%)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함(백분율).
-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함.

<그림 3-4>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순위문항)



Base: 전체, N = 1,145명, 단위: %

<그림 3-5>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1+2순위 종합)



N = 2,000명('19.06.) - 1,145명('19.10.), 단위: %

응답자 특성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자리 안정성, 소득 등 직업의 외향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비율이 높음.

<표 3-4>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1+2순위종합)

(단위: 명, %)

		사례수	일자리 안정성	높은 소득	사회적 인정	장래 발전 가능성
전체		**(1,145)**	**61.4**	**43.4**	**8.5**	**10.1**
성별	남성	(607)	62.4	48.5	11.0	11.4
	여성	(538)	60.5	38.1	6.0	8.7
연령	19~29세	(193)	51.2	44.0	13.3	8.0
	30~39세	(213)	64.7	44.1	6.9	11.9
	40~49세	(244)	61.9	42.4	5.3	8.2
	50~59세	(303)	66.0	43.6	9.2	8.6
	60세 이상	(192)	62.7	42.8	8.2	15.1
거주 지역	서울	(221)	57.8	42.2	9.8	12.5
	인천/경기	(362)	58.5	42.7	7.6	11.8
	대전/세종/충청	(118)	66.3	42.9	13.6	6.9
	광주/전라	(99)	66.7	38.2	11.1	8.4
	대구/경북	(114)	61.0	44.4	5.8	8.8
	부산/울산/경남	(181)	68.8	49.2	6.4	8.6
	강원/제주	(50)	50.0	43.3	5.1	6.3
직업	농/임/어업	(12)	48.8	39.6	17.9	14.9
	자영업	(81)	51.4	47.3	14.3	15.3
	판매/영업/서비스직	(74)	51.3	38.0	15.6	7.1
	생산/기능/노무직	(86)	70.2	60.6	6.3	10.5
	사무/관리/전문직	(556)	62.5	46.9	7.9	10.5
	전업주부	(183)	71.3	36.4	6.6	8.5
	학생	(52)	52.5	43.8	8.4	3.5
	무직/퇴직/기타	(101)	53.3	25.1	6.8	12.1

<이어짐>

응답자 특성

- 직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항목 중 '자율성'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음.
-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일-생활의 균형'의 비율이 더 높음.

<표 3-5>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1+2순위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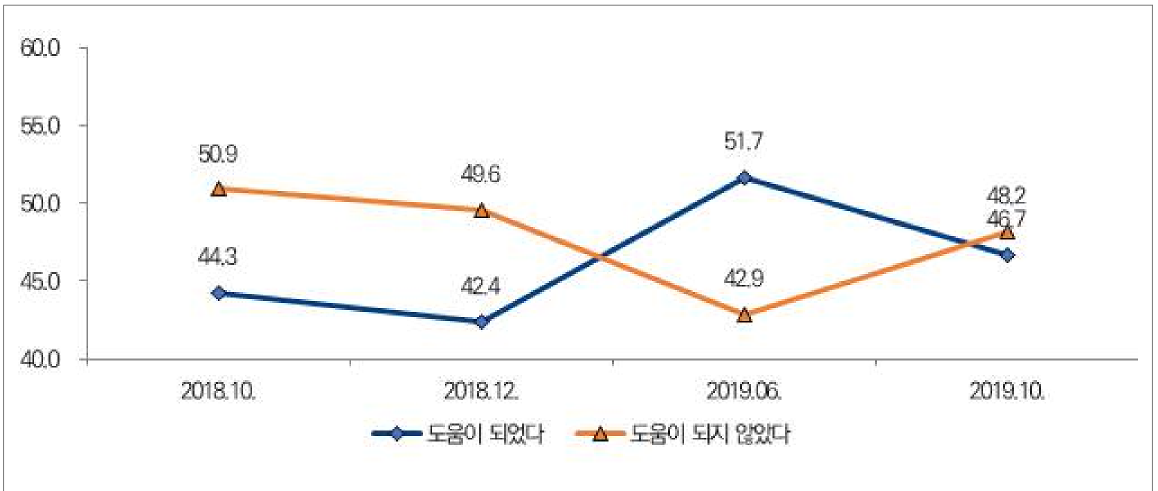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나의 적성	일의 재미	자율성	일-생활의 균형	인간관계
전체		**(1,145)**	**23.4**	**13.6**	**4.1**	**31.1**	**4.5**
성별	남성	(607)	20.9	12.5	4.5	25.7	3.2
	여성	(538)	25.9	14.6	3.7	36.6	5.8
연령	19~29세	(193)	30.1	13.1	4.3	32.3	3.7
	30~39세	(213)	19.1	13.3	4.5	32.7	2.8
	40~49세	(244)	22.9	14.9	5.3	32.3	6.9
	50~59세	(303)	22.6	13.4	3.2	28.6	4.8
	60세 이상	(192)	22.0	13.0	3.1	29.5	3.7
거주 지역	서울	(221)	23.4	19.7	5.4	25.9	3.2
	인천/경기	(362)	22.5	13.3	3.1	36.6	3.9
	대전/세종/충청	(118)	27.6	11.5	2.6	27.9	0.6
	광주/전라	(99)	24.5	8.8	2.2	32.0	8.2
	대구/경북	(114)	19.0	11.4	3.6	37.3	8.8
	부산/울산/경남	(181)	20.6	9.4	7.2	24.1	5.8
	강원/제주	(50)	37.1	23.9	3.3	29.7	1.2
직업	농/임/어업	(12)	35.5	16.2	13.9	7.0	6.2
	자영업	(81)	15.6	19.7	7.6	25.3	3.6
	판매/영업/서비스직	(74)	27.2	22.0	4.8	22.7	11.2
	생산/기능/노무직	(86)	12.5	11.7	1.9	25.2	1.1
	사무/관리/전문직	(556)	21.1	11.4	4.3	31.9	3.6
	전업주부	(183)	21.8	13.5	3.4	34.7	3.7
	학생	(52)	39.8	14.8	5.8	29.6	1.9
	무직/퇴직/기타	(101)	37.9	15.5	0.8	38.5	10.0

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의 도움 정도

- 응답자의 46.7%가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48.2%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19년 6월 조사 대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0%p 하락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3%p 상승함.
  - 도움이 되었다: 51.7%('19.06.) → 48.2%('19.10.)
  - 도움이 되지 않았다: 42.9%('19.06.) → 46.7%('19.10.)

<그림 3-6>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의 도움 정도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

- '40~50대'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20~30대'와 '60대'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음.
- '판매/영업/서비스직'(52.9%) 및 '사무/관리/전문직'(51.4%)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의 비율이 더 높음.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60.0%) 근로자의 긍정 비율이 높음.

<표 3-6>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대체로 도움이 됨	③+④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잘 모름
전체		**(1,145)**	**46.7**	**6.7**	**40.0**	**48.2**	**36.2**	**12.0**	**5.1**
성별	남성	(607)	42.8	8.4	34.4	53.2	38.2	15.0	4.0
	여성	(538)	50.7	4.9	45.8	43.1	34.1	8.9	6.2
연령	19~29세	(193)	40.9	7.0	33.9	51.9	40.0	11.9	7.2
	30~39세	(213)	44.7	9.3	35.4	47.2	37.4	9.8	8.1
	40~49세	(244)	54.0	6.8	47.2	41.5	34.8	6.7	4.5
	50~59세	(303)	51.1	5.0	46.1	46.1	31.5	14.5	2.8
	60세 이상	(192)	39.8	5.5	34.3	57.1	38.8	18.2	3.2
직업	농/임/어업	(12)	44.8	9.3	35.5	55.2	29.5	25.7	0.0
	자영업	(81)	28.4	3.4	25.0	68.4	42.5	25.9	3.3
	판매/영업/서비스직	(74)	52.9	5.8	47.1	44.5	39.2	5.3	2.5
	생산/기능/노무직	(86)	38.0	1.2	36.8	57.6	43.1	14.5	4.4
	사무/관리/전문직	(556)	51.4	10.4	41.0	43.6	32.7	10.9	4.9
	전업주부	(183)	46.1	2.5	43.6	47.7	35.1	12.6	6.2
	학생	(52)	40.8	1.9	39.0	52.1	42.3	9.8	7.1
	무직/퇴직/기타	(101)	42.0	4.1	37.9	50.9	41.7	9.1	7.1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200)	60.0	14.6	45.4	38.0	27.5	10.5	1.9
	50인~300인 미만	(225)	46.8	5.1	41.7	50.1	36.6	13.4	3.1
	5인~50인 미만	(235)	46.6	7.9	38.7	46.1	36.0	10.1	7.2
	5인 미만 사업장	(149)	34.6	5.3	29.3	60.1	42.8	17.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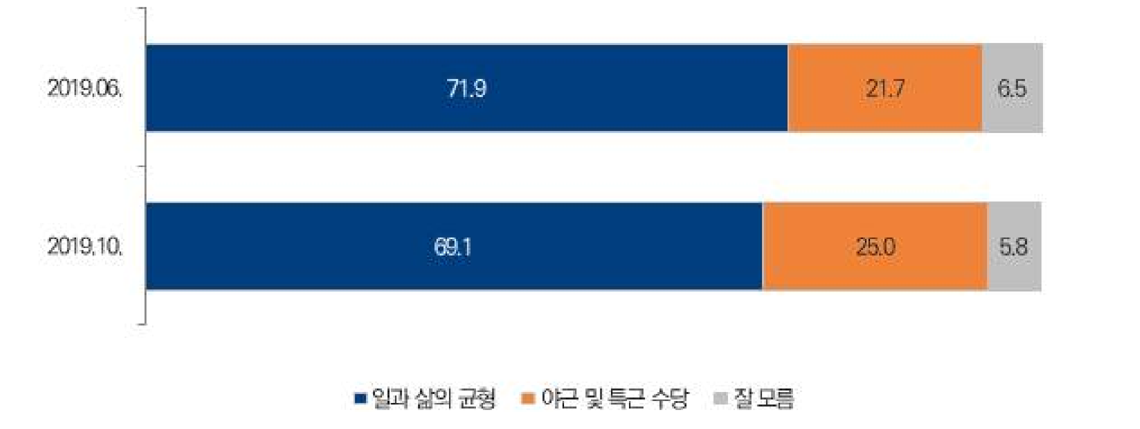
바. '야근/특근 수당' 및 '일과 삶의 균형' 중 선택

- '야근 및 특근 수당'과 '일과 삶의 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69.1%로 '야근 및 특근 수당'(25.0%)보다 매우 높음.
- '19년 1차(6월) 조사 대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선호 응답은 2.8%p 하락한 반면, '야근 및 특근수당'의 선호 응답은 3.3%p 상승함.

※ 일과 삶의 균형: 71.9%('19.06.) → 69.1%('19.10.)

※ 야근 및 특근 수당: 21.7%('19.06.) → 25.0%('19.10.)

<그림 3-7> '야근/특근 수당' 및 '일과 삶의 균형' 중 선택



N = 2,000('19.06.) - 1,145('19.10.'), 단위: %

응답자 특성

- 여성(77.0%)이 남성(61.6%)에 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
- 20~40대에서는 '야근 및 특근 수당'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50대 이상은 20~40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한 경향이 나타남.

<표 3-7> '일과 삶의 균형' 및 '야근/특근 수당' 중 선택

(단위: 명, %)

		사례수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야근 및 특근 수당	잘 모름
전체		**(1,145)**	**69.1**	**25.0**	**5.8**
성별	남성	(607)	61.6	32.4	6.0
	여성	(538)	77.0	17.3	5.7
연령	19~29세	(193)	69.3	20.0	10.7
	30~39세	(213)	73.2	21.0	5.9
	40~49세	(244)	74.1	22.9	3.0
	50~59세	(303)	64.3	29.4	6.3
	60세 이상	(192)	64.5	32.3	3.2
직업	농/임/어업	(12)	57.3	42.7	0.0
	자영업	(81)	59.4	34.4	6.2
	판매/영업/서비스직	(74)	68.0	24.3	7.7
	생산/기능/노무직	(86)	54.2	42.6	3.2
	사무/관리/전문직	(556)	72.5	22.7	4.8
	전업주부	(183)	70.1	24.4	5.5
	학생	(52)	72.3	15.5	12.2
	무직/퇴직/기타	(101)	68.8	22.0	9.2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200)	72.6	22.3	5.1
	50인~300인 미만	(225)	65.8	31.5	2.7
	5인~50인 미만	(235)	70.7	23.6	5.7
	5인 미만 사업장	(149)	64.5	28.4	7.1

2.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가. 노동시간 단축 제도(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인지도 및 평가

1) 노동시간 단축 제도(주52시간 근로제) 인지도

- 노동시간 단축 제도(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98.3%가 '인지하고 있다'('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알고 있다' 62.8% +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알지 못한다' 35.5%)고 응답함.
-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차 조사에 비해 높아짐.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인지: 97.0%('19.06.) → 98.3%('19.10.)

<그림 3-9> 노동시간 단축 제도(주52시간 근로제) 인지도

Base : 전체, 단위: %
N = 1,515명('18.08.) - 2,000명('19.06.) - 1,145명('19.10.)

응답자 특성

-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인지도가 높음.
- 타 직업 종사자에 비해 '생산/기능/노무직'(75.8%)과 '사무/관리/노무직'(68.8%)에서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음.

<표 3-8> 노동시간 단축 제도(주52시간 근로제) 인지도

(단위: 명, %)

		사례수	인지 (들어보았음)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알지 못함	들어본 적 없음
전체		**(1,145)**	**98.3**	**62.8**	**35.5**	**1.7**
성별	남성	(607)	98.7	69.8	28.9	1.3
	여성	(538)	97.8	55.5	42.3	2.2
연령	19~29세	(193)	97.5	60.7	36.8	2.4
	30~39세	(213)	96.7	61.3	35.4	3.2
	40~49세	(244)	100.0	64.6	35.4	0.0
	50~59세	(303)	97.2	61.4	35.8	2.8
	60세 이상	(192)	100.0	66.4	33.6	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245)	96.6	52.4	44.2	3.4
	대학교 졸업	(793)	98.6	65.6	33.0	1.4
	대학원 재학 이상	(107)	100.0	65.7	34.3	0.0
거주 지역	서울	(221)	99.1	62.6	36.5	1.0
	인천/경기	(362)	97.8	64.7	33.1	2.2
	대전/세종/충청	(118)	99.4	64.3	35.1	0.6
	광주/전라	(99)	99.0	59.4	39.6	1.1
	대구/경북	(114)	97.9	60.7	37.2	2.2
	부산/울산/경남	(181)	96.9	64.0	32.9	3.2
	강원/제주	(50)	100.0	53.1	46.9	0.0
직업	농/임/어업	(12)	100.0	59.8	40.2	0.0
	자영업	(81)	97.7	60.9	36.8	2.3
	판매/영업/서비스직	(74)	96.0	48.7	47.3	3.9
	생산/기능/노무직	(86)	100.0	75.8	24.2	0.0
	사무/관리/전문직	(556)	98.2	68.8	29.4	1.7
	전업주부	(183)	97.2	50.5	46.7	2.8
	학생	(52)	100.0	61.6	38.4	0.0
	무직/퇴직/기타	(101)	99.4	54.3	45.1	0.6

응답자 특성

- ✔ '정규직'(71.5%) 근로자가 '비정규직'(50.4%) 근로자에 비해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음.
- ✔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음.

<표 3-9> 노동시간 단축 제도(주52시간 근로제) 인지도(계속)

(단위: 명, %)

		사례수	인지 (들어보았음)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알지 못함	들어본 적 없음
전체		**(1,145)**	**98.3**	**62.8**	**35.5**	**1.7**
고용형태	정규직	(588)	98.5	71.5	27.0	1.4
	비정규직	(86)	97.2	50.4	46.8	2.8
	해당없음	(471)	98.1	54.4	43.7	1.9
직장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200)	98.5	79.6	18.9	1.5
	50인 이상 300인 미만	(225)	98.6	74.8	23.8	1.4
	5인 이상 50인 미만	(235)	98.7	60.2	38.5	1.3
	5인 미만 사업장	(149)	96.5	47.3	49.2	3.5
노동시간 단축 여부	시행하고 있음	(145)	100.0	87.9	12.1	0.0
	시행하지 않음	(33)	100.0	63.7	36.3	0.0
	잘 모름	(22)	87.3	53.7	33.6	12.7
	해당되지 않음	(945)	98.3	59.2	39.1	1.8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312)	97.6	48.8	48.8	2.3
	201~300만원 이하	(277)	99.0	67.3	31.7	1.0
	301~400만원 이하	(210)	97.4	67.2	30.2	2.7
	401~500만원 이하	(140)	99.2	72.3	26.9	0.8
	501~600만원 이하	(79)	100.0	73.1	26.9	0.0
	601만원 이상	(100)	98.6	71.2	27.4	1.4
	잘 모름	(27)	94.4	42.1	52.3	5.6
월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	(98)	92.9	47.6	45.3	7.0
	201~300만원 이하	(160)	98.9	56.7	42.2	1.1
	301~400만원 이하	(202)	98.3	58.2	40.1	1.6
	401~500만원 이하	(183)	98.3	64.9	33.4	1.7
	501~600만원 이하	(155)	100.0	67.3	32.7	0.0
	601만원 이상	(347)	98.6	69.4	29.2	1.4

나. 사업장 규모별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및 인지도

1)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여부(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

- 현재 노동시간 단축 제도(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 중 70.8%가 현 직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7.3%, '잘 모른다'는 응답은 11.9%임.
- 1차 조사에 비해 '시행하고 있다'는 비율은 9.0%p 하락한 반면,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은 3.8%p 상승함.
  - 시행하고 있다: 79.8%('19.06.) → 70.8%('19.10.)
  - 시행하지 않고 있다: 13.5%('19.06.) → 17.3%('19.10.)

<그림 3-10>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여부(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

Base: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 N = 200, 단위: %

응답자 특성

✔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의 88.3%가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사무/관리/전문직'은 71.5%, '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는 48.5%가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3-10>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여부(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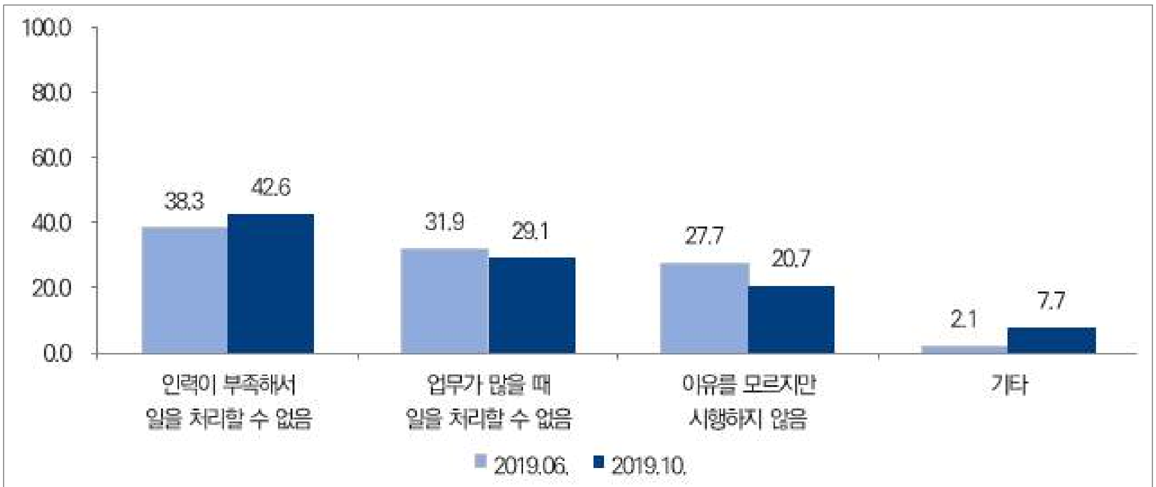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시행하고 있음	시행하지 않음	잘 모름
전체		**(200)**	**70.8**	**17.3**	**11.9**
성별	남성	(143)	71.9	17.9	10.3
	여성	(57)	68.6	15.9	15.5
연령	19~29세	(31)	67.2	22.6	10.2
	30~39세	(62)	69.9	15.6	14.5
	40~49세	(43)	65.8	20.9	13.3
	50~59세	(50)	80.5	11.4	8.1
	60세 이상	(14)	66.8	20.0	13.2
거주 지역	서울	(45)	64.6	24.5	11.0
	인천/경기	(58)	68.0	18.8	13.2
	대전/세종/충청	(20)	76.8	7.7	15.6
	광주/전라	(18)	70.9	20.0	9.1
	대구/경북	(19)	86.6	13.4	0.0
	부산/울산/경남	(31)	75.9	9.4	14.7
	강원/제주	(9)	55.6	24.2	20.2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21)	48.5	28.3	23.2
	생산/기능/노무직	(21)	88.3	7.2	4.5
	사무/관리/전문직	(158)	71.5	17.1	11.4

1-1)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

- 노동시간 단축 제도 미시행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42.6%가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업무가 많을 때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응답은 29.1%임.
- '이유를 모르지만 시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7%임.

<그림 3-11>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



Base: 노동시간 단축 제도 미시행 사업장 근로자, N = 33, 단위: %

응답자 특성

✔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의 47.1%는 '인력이 부족하여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업무가 많을 때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응답은 29.3%임.

<표 3-11>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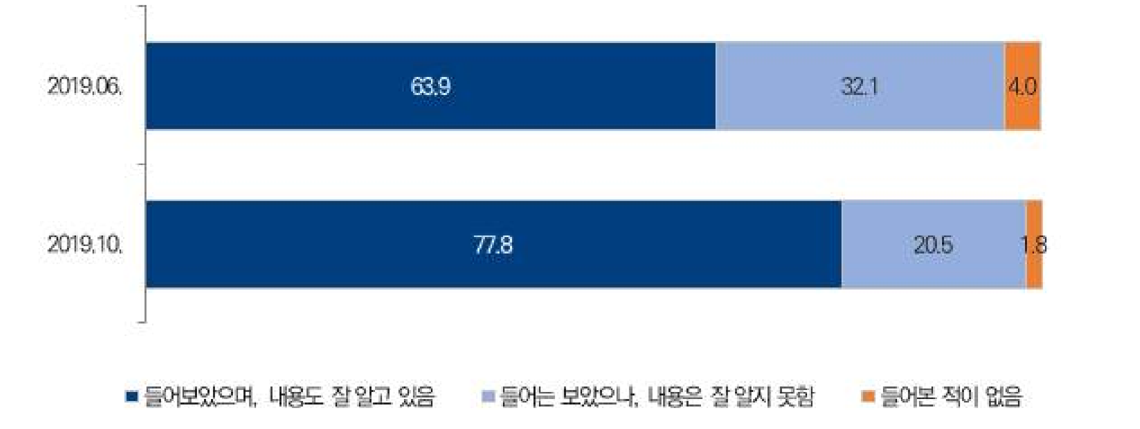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업무가 많을 때 일을 처리할 수 없음	인력이 부족하여 일을 처리할 수 없음	이유는 모르지만 시행하지 않음	기타
전체		**(33)**	**29.1**	**42.6**	**20.7**	**7.7**
성별	남성	(24)	32.8	45.3	19.2	2.7
	여성	(9)	19.9	36.2	24.2	19.7
연령	19~29세	(7)	20.9	44.8	34.3	0.0
	30~39세	(10)	10.2	66.9	22.9	0.0
	40~49세	(9)	65.2	11.4	15.7	7.6
	50~59세	(5)	12.5	35.9	14.2	37.4
	60세 이상	(2)	37.5	62.5	0.0	0.0
거주지역	서울	(11)	26.0	45.8	28.2	0.0
	인천/경기	(9)	42.7	33.9	23.4	0.0
	대전/세종/충청	(1)	0.0	100.0	0.0	0.0
	광주/전라	(3)	17.2	30.1	0.0	52.7
	대구/경북	(3)	0.0	67.4	32.6	0.0
	부산/울산/경남	(4)	23.3	53.3	0.0	23.3
	강원/제주	(2)	62.5	0.0	37.5	0.0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5)	35.2	18.8	0.0	46.0
	생산/기능/노무직	(2)	0.0	52.6	47.4	0.0
	사무/관리/전문직	(26)	29.3	47.1	23.6	0.0

2)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인지도(중소기업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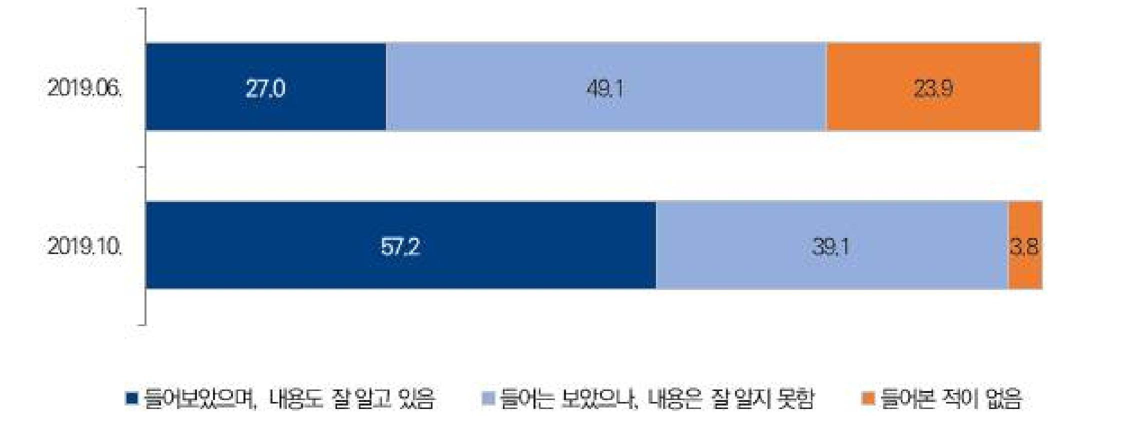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98.3%가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알고 있다’ 77.8% + ‘들어보았으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20.5%)고 응답함.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96.3%가 인지(‘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알고 있다’ 57.2% + ‘들어는 보았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39.1%)하고 있음.
- ’19년 6월 조사 대비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함.

<그림 3-12>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인지도(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Base: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N = 225, 단위: %

<그림 3-13>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인지도(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Base: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N = 235, 단위: %

응답자 특성

✔ '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84.2%)는 '생산/기능/노무직'(100.0%)과 '사무/관리/전문직'(99.5%) 종사자에 비해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 3-12>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인지도(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단위: 명, %)

		사례수	인지 (들어보았음)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알지 못함	들어본 적 없음
전체		**(225)**	**98.3**	**77.8**	**20.5**	**1.8**
성별	남성	(136)	99.2	80.9	18.3	0.8
	여성	(89)	96.9	73.4	23.5	3.0
연령	19~29세	(27)	92.6	65.2	27.4	7.4
	30~39세	(55)	98.6	75.5	23.1	1.4
	40~49세	(68)	100.0	81.0	19.0	0.0
	50~59세	(52)	98.1	81.9	16.2	1.9
	60세 이상	(23)	100.0	82.9	17.1	0.0
거주 지역	서울	(45)	95.3	77.4	17.9	4.7
	인천/경기	(72)	100.0	76.3	23.7	0.0
	대전/세종/충청	(14)	100.0	94.8	5.2	0.0
	광주/전라	(24)	100.0	75.8	24.2	0.0
	대구/경북	(26)	96.4	76.0	20.4	3.6
	부산/울산/경남	(38)	97.8	78.0	19.8	2.2
	강원/제주	(6)	100.0	71.1	28.9	0.0
직업	자영업	(2)	100.0	40.2	59.8	0.0
	판매/영업/서비스직	(20)	84.2	73.6	10.6	15.8
	생산/기능/노무직	(31)	100.0	91.5	8.5	0.0
	사무/관리/전문직	(172)	99.5	76.2	23.3	0.5

응답자 특성

✔ '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90.6%)들이 타 직업의 종사자에 비해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 3-13>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여부(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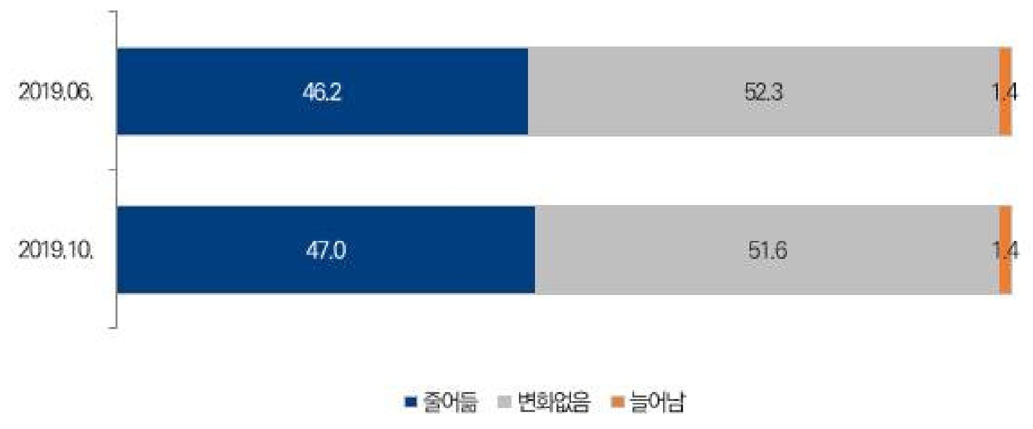
		사례수	인지 (들어보았음)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알지 못함	들어본 적 없음
전체		**(235)**	**96.3**	**57.2**	**39.1**	**3.8**
성별	남성	(149)	96.7	58.3	38.4	3.2
	여성	(86)	95.4	55.3	40.1	4.6
연령	19~29세	(39)	97.7	66.2	31.5	2.2
	30~39세	(46)	87.9	52.2	35.7	12.2
	40~49세	(53)	98.2	48.6	49.6	1.8
	50~59세	(60)	100.0	55.1	44.9	0.0
	60세 이상	(37)	97.6	69.7	27.9	2.5
거주 지역	서울	(57)	94.3	58.4	35.9	5.6
	인천/경기	(82)	96.2	54.4	41.8	3.9
	대전/세종/충청	(24)	96.0	60.2	35.8	4.0
	광주/전라	(15)	94.8	46.9	47.9	5.2
	대구/경북	(15)	100.0	58.7	41.3	0.0
	부산/울산/경남	(28)	97.0	66.3	30.7	3.0
	강원/제주	(14)	100.0	56.4	43.6	0.0
직업	농/임/어업	(2)	100.0	100.0	0.0	0.0
	자영업	(12)	100.0	67.1	32.9	0.0
	판매/영업/서비스직	(18)	90.6	64.3	26.3	9.5
	생산/기능/노무직	(30)	100.0	37.7	62.3	0.0
	사무/관리/전문직	(173)	96.0	58.5	37.5	4.0

다.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의 변화(제도 시행 사업장 근로자 대상)

1)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근로시간의 변화

-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 중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7.0%가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은 1.4%,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51.6%임.
- '19년 6월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함.

<그림 3-14>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근로시간의 변화



Base: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사업장 근로자, N = 145, 단위: %

응답자 특성

✔ '판매/영업/서비스직'(52.9%)과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53.3%)들은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생산/기능/노무직'(60.4%) 종사자들은 근로시간이 이전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이 많음.

<표 3-14>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근로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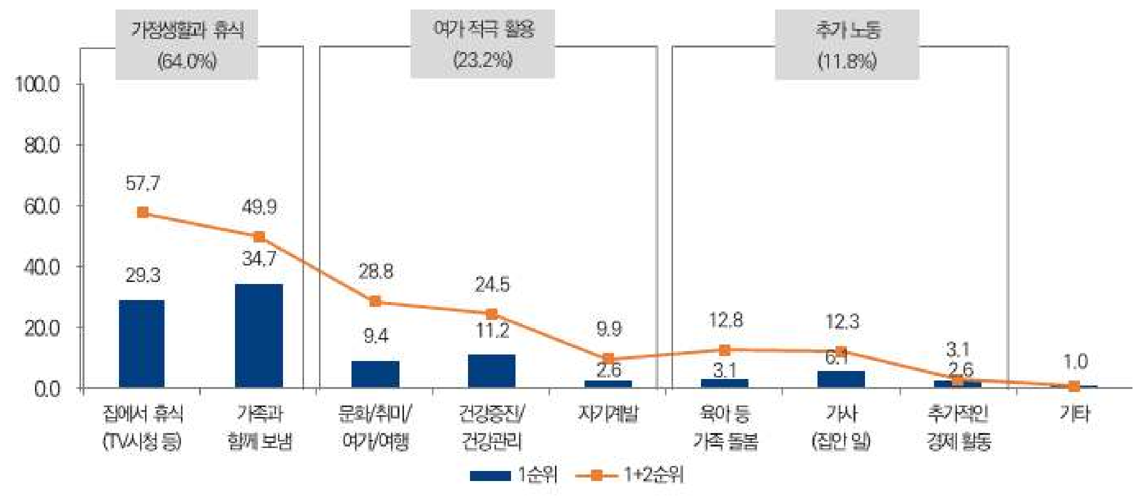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줄어듦	많이 줄어듦	다소 줄어듦	큰 변화 없음	오히려 늘어남
전체		**(145)**	**47.0**	**9.6**	**37.4**	**51.6**	**1.4**
성별	남성	(105)	49.8	10.8	39.0	48.1	2.1
	여성	(40)	40.5	6.9	33.6	59.4	0.0
연령	19~29세	(21)	36.6	0.0	36.6	59.2	4.3
	30~39세	(44)	45.8	8.2	37.6	52.0	2.3
	40~49세	(29)	62.4	7.8	54.6	37.5	0.0
	50~59세	(41)	50.0	21.2	28.8	50.0	0.0
	60세 이상	(10)	22.2	0.0	22.2	77.8	0.0
거주 지역	서울	(29)	42.0	7.5	34.5	51.1	7.0
	인천/경기	(42)	50.0	10.2	39.8	50.0	0.0
	대전/세종/충청	(16)	51.7	0.0	51.7	48.3	0.0
	광주/전라	(14)	59.5	33.3	26.2	40.4	0.0
	대구/경북	(16)	32.6	12.0	20.6	67.4	0.0
	부산/울산/경남	(23)	48.0	5.0	43.0	52.0	0.0
	강원/제주	(5)	40.9	0.0	40.9	59.1	0.0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1)	37.1	12.5	24.6	52.9	10.0
	생산/기능/노무직	(18)	60.4	18.6	41.8	39.6	0.0
	사무/관리/전문직	(116)	45.8	8.0	37.8	53.3	0.9

2) 노동시간 단축 시행 후의 시간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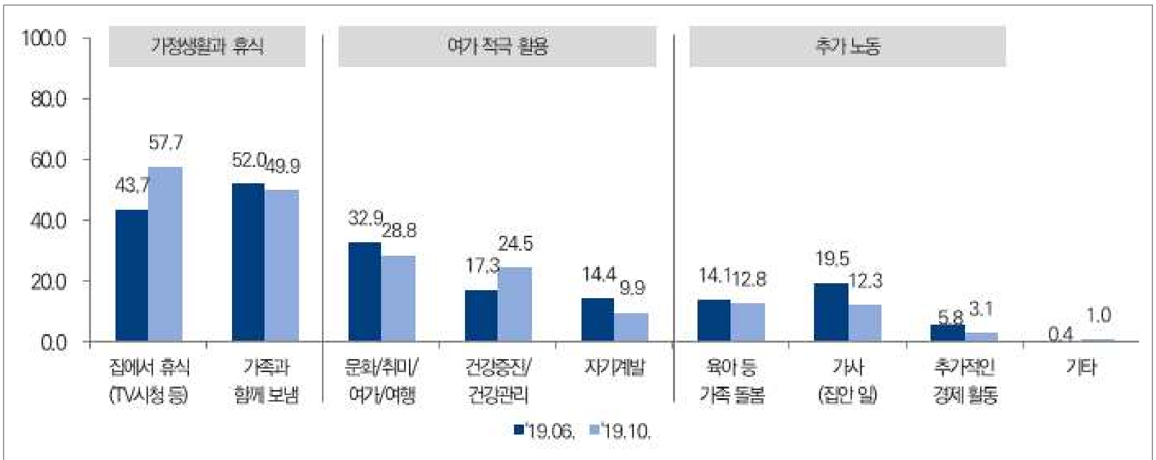
- 노동시간 단축 시행 후 줄어든 시간을 '집에서 휴식(TV시청 등)을 취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높으며, '가족과 함께 보낸다'(49.9%), '문화/취미/여가/여행'(28.8%), '건강증진/건강관리 활동'(24.5%), '육아 등 가족 돌봄'(12.8%), '가사(집안일)'(12.3%), '자기계발'(9.9%), '추가적인 경제활동'(3.1%) 순임.
- 이를 범주별(백분율)로 재분류하면, '가정생활과 휴식'(64.0%), '여가/문화 활동 등의 적극 활용'(23.2%), '가사, 투잡 등 추가 노동'(11.8%) 순으로 나타남.
- 1차 조사 대비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14.0%p)와 '건강증진/관리 활동'(7.2%p)의 비율이 상승함.

<그림 3-15>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시간활용(순위문항)



Base: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사업장 근로자, N = 145, 단위: %

<그림 3-16>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시간활용(1+2종합, 1~2차 비교)



Base: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사업장 근로자, N = 145, 단위: %

응답자 특성

- 남녀 모두 '가족과 함께 보냄'과 '휴식을 취함'이 가장 높음.
- 다만, 가사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은 '가사(집안 일)'(19.1%), '육아 등 가족 돌봄'(14.7%) 모두 남성(9.3%, 11.9%)에 비해 높음.
- 30~50대는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와 60대는 '휴식을 취한다'는 비율이 높음.

<표 3-15>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시간활용(1+2순위종합)

(단위: 명, %)

		사례수	가족과 함께 보냄	육아 등 가족 돌봄	가사 (집안 일)	휴식을 취함	건강증진/관리활동
전체		**(145)**	**49.9**	**12.8**	**12.3**	**57.7**	**24.5**
성별	남성	(105)	50.5	11.9	9.3	55.2	26.9
	여성	(40)	48.6	14.7	19.1	63.4	19.1
연령	19~29세	(21)	24.7	4.5	24.9	78.0	24.4
	30~39세	(44)	56.1	33.4	11.8	54.8	13.8
	40~49세	(29)	52.0	9.3	14.2	50.9	31.2
	50~59세	(41)	59.9	0.0	6.5	55.5	28.8
	60세 이상	(10)	39.9	0.0	0.0	46.9	37.9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1)	31.8	0.0	27.0	77.3	9.2
	생산/기능/노무직	(18)	39.4	10.8	19.8	50.3	39.9
	사무/관리/전문직	(116)	53.1	14.2	9.9	57.1	23.5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11)	27.9	0.0	7.6	92.4	21.8
	201~300만원 이하	(41)	45.9	12.1	17.2	60.1	26.4
	301~400만원 이하	(27)	50.4	9.9	14.7	59.1	16.2
	401~500만원 이하	(25)	56.5	23.9	13.2	45.1	24.4
	501~600만원 이하	(20)	62.1	20.8	12.2	43.8	26.2
	601만원 이상	(21)	51.9	4.7	0.0	57.4	32.7

<이어짐>

응답자 특성

✓ 남성은 여성에 비해 '문화/취미/여가/여행'(32.0%), '추가적인 경제활동'(3.3%)의 비율이 더 높고, 여성은 '자기계발'(11.0%)의 비율이 높음.

<표 3-16>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시간활용(1+2순위종합, 계속)

(단위: 명, %)

		사례수	문화/취미/여가/여행	자기계발	추가적인 경제 활동	기타
전체		**(145)**	**28.8**	**9.9**	**3.1**	**1.0**
성별	남성	(105)	32.0	9.4	3.3	1.5
	여성	(40)	21.5	11.0	2.6	0.0
연령	19~29세	(21)	32.7	10.8	0.0	0.0
	30~39세	(44)	24.7	5.4	0.0	0.0
	40~49세	(29)	24.6	13.0	2.4	2.5
	50~59세	(41)	32.4	10.4	4.5	2.0
	60세 이상	(10)	35.2	17.9	22.2	0.0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1)	54.7	0.0	0.0	0.0
	생산/기능/노무직	(18)	16.8	11.0	3.8	8.2
	사무/관리/전문직	(116)	28.4	10.6	3.3	0.0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11)	30.4	14.2	5.5	0.0
	201~300만원 이하	(41)	26.7	9.9	0.0	1.6
	301~400만원 이하	(27)	39.4	10.3	0.0	0.0
	401~500만원 이하	(25)	20.9	16.0	0.0	0.0
	501~600만원 이하	(20)	21.7	3.7	9.4	0.0
	601만원 이상	(21)	33.4	4.9	10.8	4.1

3) 여가(문화, 취미, 자기계발 등) 활동

- 문화/취미/여가활동 중 '여행 및 관광 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고, '영화, 공연,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활동'(47.3%),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38.4%), '외국어 학습 등 자기계발 활동'(26.8%), '게임, 낚시 등 취미·오락 활동'(23.4%), '봉사활동, 종교활동, 친구와의 만남 등 사회활동'(13.3%) 순임.

<그림 3-17> 여유 시간에 즐기는 여가 활동(순위문항)

Base: 여유 시간 중 문화/취미/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자, N = 78, 단위: %

응답자 특성

✔ 남성은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45.6%)과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45.2%)을 한다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여행 및 관광활동'(69.2%),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52.3%) 비율이 높음.

<표 3-17> 여유 시간에 즐기는 문화, 취미, 자기계발 활동(순위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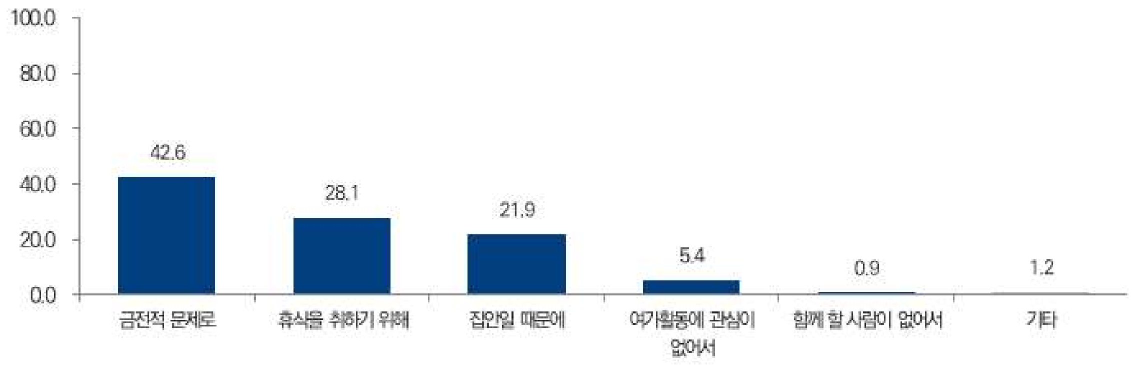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문화예술 관람/참여	스포츠 관람/참여	여행/관광	취미·오락	자기계발	사회활동
전체		**(78)**	**47.3**	**38.4**	**50.8**	**23.4**	**26.8**	**13.3**
성별	남성	(61)	45.6	45.2	44.3	28.1	23.1	13.8
	여성	(17)	52.3	19.3	69.2	10.1	37.3	11.8
연령	19~29세	(13)	55.4	38.8	26.3	37.9	27.8	13.8
	30~39세	(19)	51.1	58.2	38.0	15.6	33.0	4.1
	40~49세	(15)	44.2	42.9	64.1	9.2	28.0	11.7
	50~59세	(24)	42.3	14.1	73.1	27.1	22.4	21.0
	60세 이상	(7)	41.1	58.9	36.8	29.8	18.6	14.9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7)	64.4	55.1	57.0	23.4	0.0	0.0
	생산/기능/노무직	(10)	20.1	73.0	25.8	33.3	19.4	28.3
	사무/관리/전문직	(61)	50.0	31.0	54.3	21.7	30.8	12.2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7)	69.4	21.0	54.2	11.4	21.4	22.5
	201~300만원 이하	(22)	37.8	59.3	42.1	16.8	26.6	17.3
	301~400만원 이하	(14)	51.2	33.2	39.0	16.3	49.0	11.3
	401~500만원 이하	(12)	46.3	36.7	50.5	24.1	33.2	9.1
	501~600만원 이하	(10)	49.1	32.5	68.6	31.4	10.3	8.1
	601만원 이상	(13)	45.7	22.0	68.1	47.1	7.8	9.3

4) 여가 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

- 여유 시간을 여가 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금전적 문제'가 42.6%로 가장 높으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28.1%), '집안일 때문에'(21.9%), '여가활동에 관심이 없어서'(5.4%),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0.9%) 순임.

<그림 3-18> 여가 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



Base: 여유 시간 중 문화/취미/여가활동을 못한다는 응답자, N = 67, 단위: %

응답자 특성

✔ 남성은 '금전적 문제'(54.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여성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44.5%)를 가장 많이 꼽음.

<표 3-18> 여가 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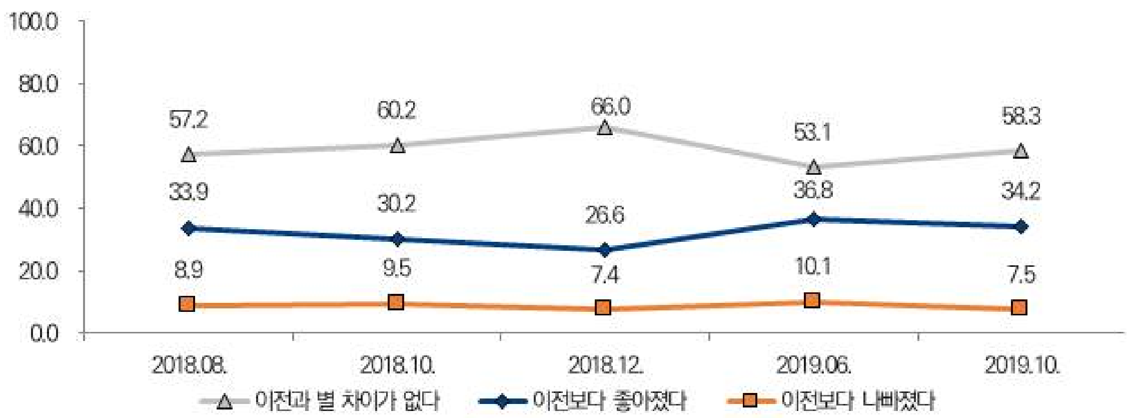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집안일 때문에	휴식을 취함	금전적 문제	여가 활동 관심 없음	함께 할 사람 없음	기타
전체		**(67)**	**21.9**	**28.1**	**42.6**	**5.4**	**0.9**	**1.2**
성별	남성	(44)	16.7	18.7	54.3	8.4	0.0	1.8
	여성	(23)	31.1	44.5	21.9	0.0	2.4	0.0
연령	19~29세	(8)	12.6	50.4	27.5	9.4	0.0	0.0
	30~39세	(25)	48.6	14.8	31.3	0.0	2.3	3.0
	40~49세	(14)	7.7	33.2	59.1	0.0	0.0	0.0
	50~59세	(17)	0.0	39.3	50.4	10.3	0.0	0.0
	60세 이상	(3)	0.0	0.0	66.5	33.5	0.0	0.0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4)	21.3	27.9	27.9	22.8	0.0	0.0
	생산/기능/노무직	(43)	16.2	10.1	73.8	0.0	0.0	0.0
	사무/관리/전문직	(10)	22.8	30.6	39.1	5.0	1.1	1.4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4)	30.7	32.4	16.6	20.3	0.0	0.0
	201~300만원 이하	(19)	20.6	26.0	46.4	0.0	3.0	4.0
	301~400만원 이하	(13)	22.1	49.8	28.1	0.0	0.0	0.0
	401~500만원 이하	(13)	34.9	7.0	52.1	6.0	0.0	0.0
	501~600만원 이하	(10)	10.4	15.1	66.6	8.0	0.0	0.0
	601만원 이상	(8)	12.5	48.2	23.3	16.0	0.0	0.0

5)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삶의 질 변화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삶의 질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고,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34.2%이며, ‘나빠졌다’는 응답은 7.5%로 나타남.
- ’19년 6월 조사에 비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5.2%p 상승한 반면, ‘이전보다 좋아졌다’와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비율은 각각 2.6%p씩 하락함.
  -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53.1%(’19.06.) → 58.3%(’19.10.)
  - 이전보다 좋아졌다: 36.8%(’19.06.) → 34.2%(’19.10.)
  - 이전보다 나빠졌다: 10.1%(’19.06.) → 7.5%(’19.10.)

<그림 3-19>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삶의 질 변화



Base: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사업장 근로자, 단위: %

N = 439명(’18.08.) - 388명(’18.10.) - 333명(’18.12.) - 277명(’19.06.) - 145명(’19.10.)

응답자 특성

✔ 정규직 종사자(36.2%)에게서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이 비정규직 종사자(2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19>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삶의 질 변화

(단위: 명, %)

		사례수	이전보다 좋아짐	별 차이 없음	이전보다 나빠짐
전체		**(145)**	**34.2**	**58.3**	**7.5**
성별	남성	(105)	35.5	53.6	10.8
	여성	(40)	31.1	68.9	0.0
연령	19~29세	(21)	60.0	40.0	0.0
	30~39세	(44)	26.0	68.9	5.1
	40~49세	(29)	28.6	59.3	12.2
	50~59세	(41)	39.3	49.5	11.2
	60세 이상	(10)	0.0	90.2	9.8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1)	29.9	42.2	27.9
	생산/기능/노무직	(18)	21.0	68.7	10.2
	사무/관리/전문직	(116)	36.6	58.1	5.3
고용형태	정규직	(128)	36.2	56.6	7.2
	비정규직	(15)	22.3	67.4	10.3
	해당없음	(2)	0.0	100.0	0.0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11)	47.6	40.5	11.9
	201~300만원 이하	(41)	26.8	70.8	2.4
	301~400만원 이하	(27)	45.7	48.3	6.0
	401~500만원 이하	(25)	31.4	57.1	11.6
	501~600만원 이하	(20)	35.5	48.3	16.3
	601만원 이상	(21)	27.3	67.9	4.7

5-1) 제도 시행 전보다 좋아진 이유

-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이 좋아진 이유로는 '취미활동 시간이 늘어서'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40.6%), '근무시간 효율성 증가'(16.5%) 순으로 나타남.
- '19년 6월 조사와 비교하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라는 응답은 3.5%p 감소했으나, '취미활동 시간이 늘어나서'라는 응답은 4.7%p 상승함.
  -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44.1%('19.06.) → 40.6%('19.10.)
  - 취미활동 시간이 늘어나서: 38.2%('19.06.) → 42.9%('19.10.)

<그림 3-20> 제도 시행 후 삶의 질이 좋아진 이유

Base: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삶의 질이 좋아짐, 단위: %
N = 149('18.08.) - 117('18.10.) - 89('18.12.) - 102('19.06.) - 48('19.10.)

응답자 특성

-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취미활동 시간'이 늘어나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높음.
- 20~30대는 '취미활동이 늘어나서'라는 비율이 높고, 40~50대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라는 비율이 높음.

<표 3-20> 제도 시행 후 삶의 질이 좋아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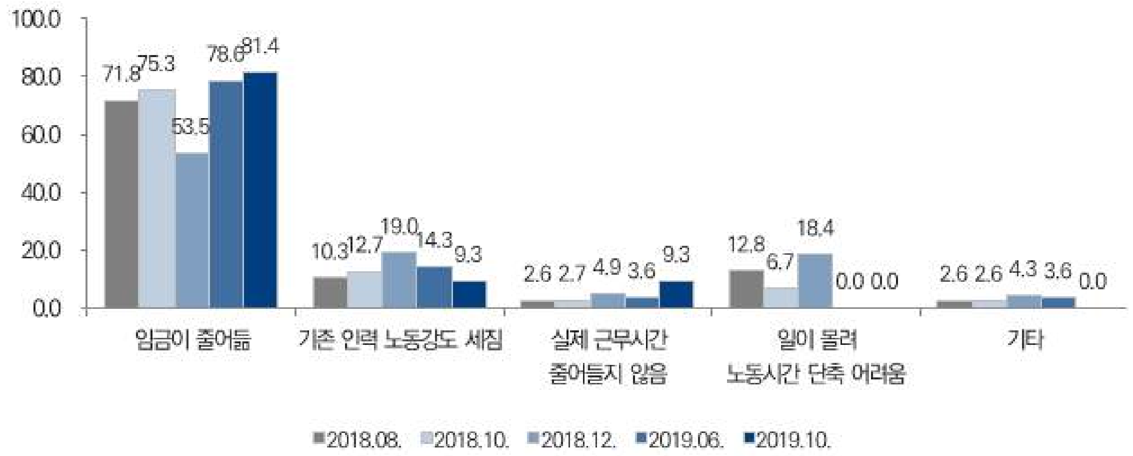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근무시간 효율성 증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었음	취미활동 시간이 늘었음	부업/ 아르바이트 가능	기타
전체		**(48)**	**16.5**	**40.6**	**42.9**	**0.0**	**0.0**
성별	남성	(35)	15.0	41.0	44.0	0.0	0.0
	여성	(13)	20.2	39.5	40.3	0.0	0.0
연령	19~29세	(13)	20.5	16.2	63.3	0.0	0.0
	30~39세	(12)	22.5	33.4	44.1	0.0	0.0
	40~49세	(8)	23.0	49.7	27.3	0.0	0.0
	50~59세	(15)	4.5	65.3	30.2	0.0	0.0
	60세 이상	(0)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	(13)	31.0	37.9	31.0	0.0	0.0
	인천/경기	(14)	0.0	53.5	46.5	0.0	0.0
	대전/세종/충청	(3)	0.0	0.0	100.0	0.0	0.0
	광주/전라	(3)	0.0	68.4	31.6	0.0	0.0
	대구/경북	(6)	16.3	27.4	56.3	0.0	0.0
	부산/울산/경남	(7)	19.4	44.0	36.6	0.0	0.0
	강원/제주	(2)	100.0	0.0	0.0	0.0	0.0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3)	27.5	0.0	72.5	0.0	0.0
	생산/기능/노무직	(3)	0.0	100.0	0.0	0.0	0.0
	사무/관리/전문직	(42)	17.2	38.2	44.6	0.0	0.0

5-2) 제도 시행 전보다 나빠진 이유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n=11)로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임금이 줄어서'라는 응답이 81.4%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기존 인력의 노동 강도가 세져서',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서' 삶의 질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9.3%임.
- '19년 6월 조사 대비 '임금이 줄어서'(+2.8%p),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서'(+5.7%p)라는 응답은 상승했으며, '기존 인력의 노동강도가 세져서'라는 응답은 5.0%p 하락함.

<그림 3-21> 제도 시행 후 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



Base: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삶의 질이 나빠짐, 단위: %
N = 39('18.08.) - 37('18.10.) - 24('18.12.) - 28('19.06.) - 11('19.10.)

<표 3-21> 제도 시행 후 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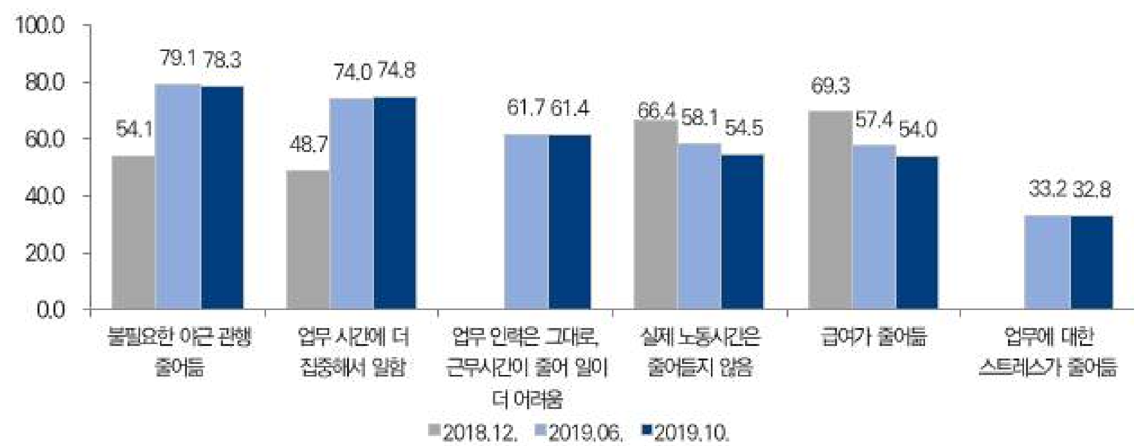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임금이 줄어듦	실제 근무시간 줄어들지 않음	기존 인력 노동강도 세짐	일이 몰려 노동시간 단축 어려움	기타
전체		**(11)**	**81.4**	**9.3**	**9.3**	**0.0**	**0.0**
성별	남성	(11)	81.4	9.3	9.3	0.0	0.0
	여성	(0)	0.0	0.0	0.0	0.0	0.0
연령	19~29세	(0)	0.0	0.0	0.0	0.0	0.0
	30~39세	(2)	55.5	0.0	44.5	0.0	0.0
	40~49세	(4)	70.1	29.9	0.0	0.0	0.0
	50~59세	(4)	100.0	0.0	0.0	0.0	0.0
	60세 이상	(1)	100.0	0.0	0.0	0.0	0.0
직업	농/임/어업	(0)	0.0	0.0	0.0	0.0	0.0
	자영업	(0)	0.0	0.0	0.0	0.0	0.0
	판매/영업/서비스직	(3)	27.9	36.2	35.9	0.0	0.0
	생산/기능/노무직	(2)	100.0	0.0	0.0	0.0	0.0
	사무/관리/전문직	(6)	100.0	0.0	0.0	0.0	0.0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2)	100.0	0.0	0.0	0.0	0.0
	201~300만원 이하	(1)	100.0	0.0	0.0	0.0	0.0
	301~400만원 이하	(2)	40.1	0.0	59.9	0.0	0.0
	401~500만원 이하	(3)	63.7	36.3	0.0	0.0	0.0
	501~600만원 이하	(2)	100.0	0.0	0.0	0.0	0.0
	601만원 이상	(1)	100.0	0.0	0.0	0.0	0.0

6)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직장 내 변화[1]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직장 내 변화에 대해서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이 78.3%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하고 있다’(74.8%), ‘업무 인력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줄어 일이 더 어려워졌다’(61.4%),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54.5%), ‘급여가 줄어들었다’(54.0%),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32.8%) 순으로 응답함.
- ’19년 6월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임.

<그림 3-22>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직장 내 변화(동의 응답)



Base: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사업장 근로자, 단위: %
N = 1,027(’18.12.) - 277(’19.06.) - 145(’19.10.)

1) 2019년 6월 조사에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업무 인력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줄어 일이 더 어려워졌다’의 문항을 추가함

응답자 특성

✔ 50~6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3-22> 직장 내 변화_불필요한 야근 관행 줄어듦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45)**	**78.3**	**16.7**	**61.6**	**21.7**	**19.3**	**2.4**
성별	남성	(105)	76.7	17.7	59.0	23.3	19.8	3.5
	여성	(40)	81.9	14.4	67.5	18.1	18.1	0.0
연령	19~29세	(21)	75.1	11.5	63.6	24.9	24.9	0.0
	30~39세	(44)	73.7	22.5	51.2	26.3	18.4	7.9
	40~49세	(29)	78.9	7.8	71.1	21.1	21.1	0.0
	50~59세	(41)	83.7	20.0	63.7	16.3	16.3	0.0
	60세 이상	(10)	84.0	16.0	68.0	16.0	16.0	0.0
거주 지역	서울	(29)	80.0	14.3	65.7	20.0	16.6	3.4
	인천/경기	(42)	67.5	18.1	49.5	32.5	26.3	6.1
	대전/세종/충청	(16)	80.0	10.0	70.0	20.0	20.0	0.0
	광주/전라	(14)	80.9	22.7	58.2	19.1	19.1	0.0
	대구/경북	(16)	84.9	14.6	70.4	15.1	15.1	0.0
	부산/울산/경남	(23)	83.7	18.3	65.4	16.3	16.3	0.0
	강원/제주	(5)	100.0	27.3	72.7	0.0	0.0	0.0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1)	69.8	25.9	43.9	30.2	20.2	10.0
	생산/기능/노무직	(18)	62.5	17.8	44.7	37.5	30.5	7.0
	사무/관리/전문직	(116)	81.4	15.7	65.7	18.6	17.5	1.1
고용 형태	정규직	(128)	77.0	15.2	61.8	23.0	20.2	2.8
	비정규직	(15)	85.9	20.9	65.0	14.1	14.1	0.0
	해당없음	(2)	100.0	100.0	0.0	0.0	0.0	0.0

응답자 특성

- ✔ 여성(82.6%)이 남성(71.3%)에 비해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한다’는 비율이 높음.
- ✔ ‘사무/관리/전문직’(77.3%) 종사자가 타 직업의 종사자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음.

<표 3-23> 직장 내 변화_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함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45)**	**74.8**	**19.9**	**54.9**	**25.2**	**22.0**	**3.2**
성별	남성	(105)	71.3	21.0	50.3	28.7	25.8	2.9
	여성	(40)	82.6	17.4	65.2	17.4	13.4	3.9
연령	19~29세	(21)	69.7	19.9	49.8	30.3	30.3	0.0
	30~39세	(44)	78.0	17.4	60.6	22.0	13.3	8.7
	40~49세	(29)	77.3	17.8	59.4	22.7	22.7	0.0
	50~59세	(41)	76.4	24.6	51.8	23.6	21.6	2.0
	60세 이상	(10)	59.3	18.7	40.6	40.7	40.7	0.0
거주 지역	서울	(29)	83.6	21.2	62.5	16.4	16.4	0.0
	인천/경기	(42)	68.9	12.4	56.5	31.1	23.9	7.1
	대전/세종/충청	(16)	68.6	19.0	49.6	31.4	31.4	0.0
	광주/전라	(14)	89.4	37.6	51.8	10.6	10.6	0.0
	대구/경북	(16)	76.4	11.4	65.0	23.6	23.6	0.0
	부산/울산/경남	(23)	64.4	21.1	43.3	35.6	28.2	7.4
	강원/제주	(5)	100.0	54.5	45.5	0.0	0.0	0.0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1)	62.0	23.2	38.8	38.0	30.2	7.8
	생산/기능/노무직	(18)	65.6	14.6	51.0	34.4	34.4	0.0
	사무/관리/전문직	(116)	77.3	20.4	56.9	22.7	19.4	3.3
고용 형태	정규직	(128)	74.4	20.9	53.5	25.6	22.5	3.1
	비정규직	(15)	75.7	11.0	64.6	24.3	19.9	4.4
	해당없음	(2)	100.0	42.9	57.1	0.0	0.0	0.0

응답자 특성

✔ '생산/기능/노무직'(78.4%) 종사자들은 '급여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판매/영업/서비스직'과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들은 동의, 비동의 응답이 비슷함.

<표 3-24> 직장 내 변화_급여가 줄어듦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45)**	**54.0**	**22.8**	**31.2**	**46.0**	**38.3**	**7.7**
성별	남성	(105)	56.7	26.1	30.6	43.3	35.1	8.2
	여성	(40)	47.9	15.4	32.5	52.1	45.5	6.6
연령	19~29세	(21)	65.4	25.9	39.5	34.6	25.8	8.8
	30~39세	(44)	47.0	21.9	25.0	53.0	42.3	10.7
	40~49세	(29)	59.2	23.3	36.0	40.8	40.8	0.0
	50~59세	(41)	47.0	21.8	25.2	53.0	42.0	11.0
	60세 이상	(10)	70.7	22.2	48.4	29.3	29.3	0.0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1)	51.5	33.7	17.8	48.5	40.3	8.2
	생산/기능/노무직	(18)	78.4	37.0	41.5	21.6	14.6	7.0
	사무/관리/전문직	(116)	50.5	19.7	30.8	49.5	41.7	7.8
고용 형태	정규직	(128)	54.0	22.4	31.6	46.0	37.1	8.9
	비정규직	(15)	50.5	20.2	30.3	49.5	49.5	0.0
	해당없음	(2)	100.0	100.0	0.0	0.0	0.0	0.0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11)	56.0	36.5	19.5	44.0	37.2	6.8
	201~300만원 이하	(41)	69.4	22.6	46.8	30.6	27.4	3.2
	301~400만원 이하	(27)	32.1	17.0	15.2	67.9	62.6	5.3
	401~500만원 이하	(25)	48.6	22.0	26.5	51.4	43.4	8.1
	501~600만원 이하	(20)	65.8	33.9	31.9	34.2	25.7	8.5
	601만원 이상	(21)	46.4	13.7	32.7	53.6	32.9	20.7

응답자 특성

✔ 60대(61.9%)는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표 3-25> 직장 내 변화_실제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음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45)**	**54.5**	**14.4**	**40.1**	**45.5**	**37.1**	**8.4**
성별	남성	(105)	53.9	14.9	39.0	46.1	38.2	7.9
	여성	(40)	55.8	13.3	42.5	44.2	34.7	9.5
연령	19~29세	(21)	55.2	16.0	39.2	44.8	37.8	7.0
	30~39세	(44)	55.4	23.7	31.7	44.6	36.3	8.3
	40~49세	(29)	62.8	7.8	55.0	37.2	28.4	8.8
	50~59세	(41)	51.0	11.0	40.0	49.0	37.9	11.1
	60세 이상	(10)	38.1	0.0	38.1	61.9	61.9	0.0
거주 지역	서울	(29)	37.3	13.5	23.8	62.7	55.9	6.8
	인천/경기	(42)	59.3	17.9	41.3	40.7	37.7	3.1
	대전/세종/충청	(16)	76.7	10.0	66.7	23.3	13.3	10.0
	광주/전라	(14)	54.6	12.1	42.6	45.4	32.6	12.8
	대구/경북	(16)	50.4	21.1	29.3	49.6	35.1	14.4
	부산/울산/경남	(23)	48.3	5.0	43.3	51.7	38.3	13.4
	강원/제주	(5)	86.4	40.9	45.5	13.6	13.6	0.0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1)	53.9	25.5	28.4	46.1	33.7	12.5
	생산/기능/노무직	(18)	55.6	14.6	41.1	44.4	40.1	4.3
	사무/관리/전문직	(116)	54.4	13.5	40.9	45.6	37.0	8.6
고용 형태	정규직	(128)	54.1	13.2	40.9	45.9	37.4	8.5
	비정규직	(15)	57.3	19.8	37.5	42.7	34.4	8.2
	해당없음	(2)	57.1	57.1	0.0	42.9	42.9	0.0

응답자 특성

✔ 대체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표 3-26> 직장 내 변화_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듦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45)**	**32.8**	**5.9**	**26.9**	**67.2**	**55.1**	**12.1**
성별	남성	(105)	32.0	7.4	24.6	68.0	54.2	13.8
	여성	(40)	34.6	2.5	32.1	65.4	57.1	8.4
연령	19~29세	(21)	41.0	7.7	33.3	59.0	45.5	13.5
	30~39세	(44)	22.3	6.4	15.9	77.7	58.5	19.2
	40~49세	(29)	33.0	3.2	29.8	67.0	67.0	0.0
	50~59세	(41)	41.4	7.6	33.8	58.6	43.7	14.9
	60세 이상	(10)	24.9	0.0	24.9	75.1	75.1	0.0
거주 지역	서울	(29)	39.0	10.2	28.9	61.0	50.3	10.7
	인천/경기	(42)	20.0	3.1	16.9	80.0	62.4	17.6
	대전/세종/충청	(16)	28.9	0.0	28.9	71.1	50.4	20.6
	광주/전라	(14)	35.5	12.8	22.7	64.5	58.9	5.7
	대구/경북	(16)	30.5	0.0	30.5	69.5	59.0	10.5
	부산/울산/경남	(23)	43.7	10.9	32.8	56.3	53.8	2.5
	강원/제주	(5)	68.2	0.0	68.2	31.8	18.2	13.6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1)	36.2	0.0	36.2	63.8	53.8	10.0
	생산/기능/노무직	(18)	41.6	13.5	28.1	58.4	43.8	14.6
	사무/관리/전문직	(116)	31.2	5.3	25.9	68.8	56.9	11.9
고용 형태	정규직	(128)	34.5	6.8	27.7	65.5	52.3	13.2
	비정규직	(15)	23.3	0.0	23.3	76.7	71.4	5.3
	해당없음	(2)	0.0	0.0	0.0	100.0	100.0	0.0

응답자 특성

✔ 대체로 '업무 인력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줄어 일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3-27> 직장 내 변화_업무 인력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줄어 일이 더 어려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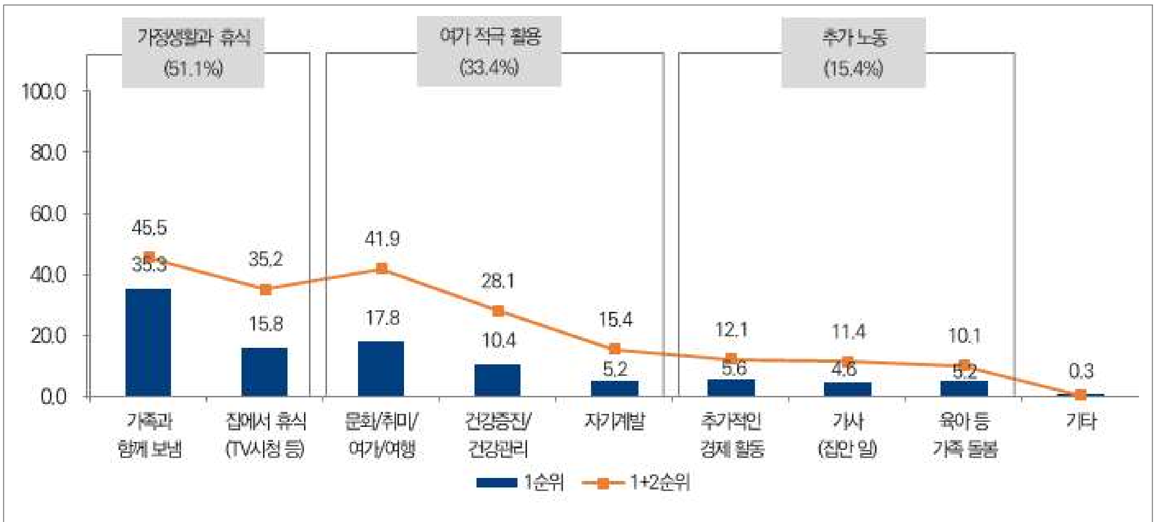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45)**	**61.4**	**18.9**	**42.5**	**38.6**	**35.0**	**3.5**
성별	남성	(105)	60.2	22.8	37.4	39.8	38.9	0.8
	여성	(40)	64.1	10.1	54.0	35.9	26.2	9.7
연령	19~29세	(21)	65.1	19.9	45.2	34.9	24.6	10.3
	30~39세	(44)	58.0	20.6	37.4	42.0	42.0	0.0
	40~49세	(29)	72.6	13.5	59.1	27.4	22.2	5.2
	50~59세	(41)	54.1	20.3	33.8	45.9	43.0	2.9
	60세 이상	(10)	64.4	18.7	45.7	35.6	35.6	0.0
거주 지역	서울	(29)	55.0	16.8	38.2	45.0	41.3	3.7
	인천/경기	(42)	62.5	24.3	38.2	37.5	37.5	0.0
	대전/세종/충청	(16)	71.7	30.1	41.6	28.3	28.3	0.0
	광주/전라	(14)	51.8	16.3	35.5	48.2	48.2	0.0
	대구/경북	(16)	60.6	5.0	55.6	39.4	30.0	9.4
	부산/울산/경남	(23)	62.5	12.9	49.6	37.5	26.7	10.9
	강원/제주	(5)	81.8	27.3	54.5	18.2	18.2	0.0
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11)	55.7	30.3	25.4	44.3	44.3	0.0
	생산/기능/노무직	(18)	78.3	38.9	39.4	21.7	21.7	0.0
	사무/관리/전문직	(116)	59.3	14.8	44.5	40.7	36.3	4.4
고용 형태	정규직	(128)	61.0	20.3	40.6	39.0	36.1	2.9
	비정규직	(15)	65.1	10.3	54.9	34.9	26.6	8.2
	해당없음	(2)	57.1	0.0	57.1	42.9	42.9	0.0

라.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예상(제도 미시행 사업장 근로자 대상)

1) 노동시간 단축 시행 후의 시간활용

- 노동시간 단축 시행 후 줄어든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것이다'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고, '문화/취미/여가/여행'(41.9%), '집에서 휴식'(35.2%), '건강증진/건강관리 활동'(28.1%), '자기계발'(15.4%), '추가적인 경제활동'(12.1%), '가사(집안일)'(11.4%), '육아 등 가족 돌봄'(10.1%) 순임.
- 이를 범주별(백분율)로 재분류하면, '가정생활과 휴식'(51.1%), '여가/문화 활동 등의 적극 활용'(33.4%), '가사, 투잡 등 추가 노동'(15.4%)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3>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시간활용(순위문항)



Base: 노동시간 단축 제도 미시행 사업장 근로자, N = 664, 단위: %

응답자 특성

✔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족과의 시간'과 '건강 증진 및 관리 활동'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육아 등 가족 돌봄'과 '가사', '휴식'의 비율이 높음.

<표 3-28>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시간활용 계획(1+2순위종합)

(단위: 명, %)

		사례수	가족과 함께 보냄	육아 등 가족 돌봄	가사 (집안 일)	휴식을 취함	건강증진/관리활동
전체		**(664)**	**45.5**	**10.1**	**11.4**	**35.2**	**28.1**
성별	남성	(415)	49.3	9.5	9.0	33.1	28.6
	여성	(249)	39.9	10.9	15.1	38.3	27.4
연령	19~29세	(87)	30.8	13.7	16.5	46.6	17.5
	30~39세	(141)	42.8	19.8	13.8	42.0	20.1
	40~49세	(169)	50.9	7.8	9.8	31.3	27.4
	50~59세	(166)	50.7	3.9	7.3	28.4	35.7
	60세 이상	(101)	47.3	4.8	11.7	30.2	40.9
직업	농/임/어업	(12)	46.5	26.3	0.0	42.1	52.0
	자영업	(81)	50.7	5.6	9.3	29.0	37.0
	판매/영업/서비스직	(63)	47.0	11.4	23.5	33.6	21.5
	생산/기능/노무직	(68)	50.5	6.1	7.5	31.1	23.3
	사무/관리/전문직	(440)	43.7	10.8	10.9	36.8	27.6
고용 형태	정규직	(460)	44.5	12.0	11.4	36.6	25.4
	비정규직	(71)	43.5	4.2	15.1	35.6	31.2
	해당없음	(133)	50.6	6.4	9.4	29.6	36.0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55)	32.5	7.9	24.6	27.0	38.8
	50인~300인 미만	(225)	42.3	14.4	10.4	31.6	29.1
	5인~50인 미만	(235)	48.6	9.5	10.8	39.7	22.5
	5인 미만 사업장	(149)	50.9	5.3	8.5	36.6	31.3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136)	36.6	6.8	17.8	36.2	27.3
	201~300만원 이하	(197)	45.0	13.7	9.7	38.1	20.6
	301~400만원 이하	(144)	56.3	6.4	9.8	34.3	28.0
	401~500만원 이하	(81)	44.1	9.8	9.1	32.0	35.7
	501~600만원 이하	(46)	46.9	14.3	4.5	35.8	45.8
	601만원 이상	(57)	43.2	12.0	13.4	26.4	35.2

<이어짐>

응답자 특성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추가적인 경제활동'(13.9%)의 비율이 더 높음.

<표 3-29>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시간활용(1+2순위종합, 계속)

(단위: 명, %)

		사례수	문화/취미/여가/여행	자기계발	추가적인 경제 활동	기타
전체		**(664)**	**41.9**	**15.4**	**12.1**	**0.3**
성별	남성	(415)	41.1	15.0	13.9	0.5
	여성	(249)	43.2	15.9	9.3	0.0
연령	19~29세	(87)	47.3	14.6	13.0	0.0
	30~39세	(141)	38.0	15.2	8.4	0.0
	40~49세	(169)	47.3	15.9	9.0	0.6
	50~59세	(166)	39.0	16.7	17.6	0.5
	60세 이상	(101)	37.7	13.6	13.8	0.0
직업	농/임/어업	(12)	25.5	7.7	0.0	0.0
	자영업	(81)	38.5	13.7	16.1	0.0
	판매/영업/서비스직	(63)	37.4	19.9	5.7	0.0
	생산/기능/노무직	(68)	37.9	11.9	30.0	1.6
	사무/관리/전문직	(440)	44.3	15.7	10.0	0.2
고용 형태	정규직	(460)	43.0	14.7	12.0	0.4
	비정규직	(71)	39.9	21.4	9.0	0.0
	해당없음	(133)	39.4	14.5	14.0	0.0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55)	47.0	16.0	6.1	0.0
	50인~300인 미만	(225)	39.6	17.4	14.6	0.5
	5인~50인 미만	(235)	42.4	14.5	11.7	0.3
	5인 미만 사업장	(149)	42.7	13.6	11.1	0.0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136)	41.8	18.0	15.7	0.0
	201~300만원 이하	(197)	45.6	13.6	13.2	0.5
	301~400만원 이하	(144)	41.5	12.9	10.8	0.0
	401~500만원 이하	(81)	38.5	20.0	10.8	0.0
	501~600만원 이하	(46)	16.9	22.5	11.4	1.8
	601만원 이상	(57)	54.2	10.8	4.8	0.0

2) 여가(문화, 취미, 자기계발 등) 활동

- 문화/취미/여가활동 중 '여행 및 관광 활동'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높고, '영화, 공연,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활동'(48.7%), '외국어 학습 등 자기계발 활동'(29.7%), '봉사활동, 종교활동, 친구와의 만남 등 사회활동'(22.3%), '게임, 낚시 등 취미·오락 활동'(22.0%),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21.9%) 순임.

<그림 3-24> 여가 활동(순위문항)

Base: 문화/취미/여가활동을 할 것이라는 응답자(제도 미시행 사업장 근로자), N = 449, 단위: %

응답자 특성

✔ 남성은 '여행 및 관광활동'(51.7%)을 할 것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61.2%)이 가장 높음.

<표 3-30> 여가활동(1+2순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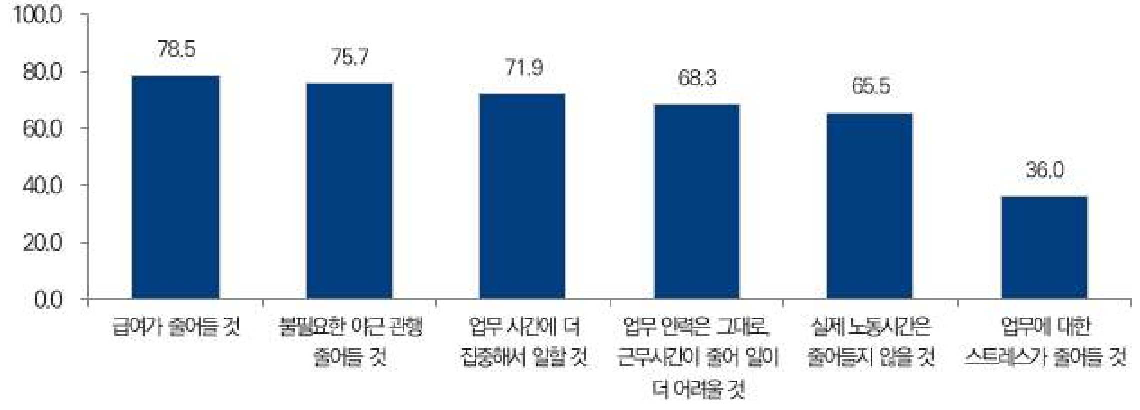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문화예술 관람/참여	스포츠 관람/참여	여행/관광	취미·오락	자기계발	사회활동
전체		**(449)**	**48.7**	**21.9**	**55.5**	**22.0**	**29.7**	**22.3**
성별	남성	(280)	40.3	27.6	51.7	30.6	28.4	21.3
	여성	(169)	61.2	13.1	61.1	9.0	31.8	23.8
연령	19~29세	(53)	65.3	27.8	34.9	25.6	34.2	12.3
	30~39세	(86)	49.8	30.6	45.9	21.4	39.3	13.0
	40~49세	(120)	52.8	20.3	58.5	21.8	31.3	15.3
	50~59세	(117)	40.1	18.4	65.1	18.6	26.5	31.3
	60세 이상	(73)	38.6	13.4	65.6	25.1	15.4	42.0
직업	농/임/어업	(9)	60.1	26.3	46.5	13.6	37.7	15.9
	자영업	(60)	35.0	27.3	59.3	27.8	20.0	30.6
	판매/영업/서비스직	(38)	51.1	8.8	51.7	16.5	30.3	41.5
	생산/기능/노무직	(40)	55.3	35.5	47.7	25.1	20.0	16.3
	사무/관리/전문직	(302)	49.8	20.5	56.4	21.4	32.5	19.4
고용형태	정규직	(301)	51.3	21.9	53.7	22.0	31.8	19.4
	비정규직	(50)	48.3	19.3	57.4	18.1	33.0	24.0
	해당없음	(98)	40.5	23.2	60.0	24.0	21.4	30.8
직장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42)	36.8	22.4	49.2	30.2	29.3	32.1
	50인~300인 미만	(147)	52.2	18.4	55.6	18.1	36.3	19.3
	5인~50인 미만	(151)	51.3	24.5	54.0	24.9	26.6	18.6
	5인 미만 사업장	(109)	45.1	22.7	60.0	19.6	25.2	27.4
월 급여 수준	200만원 이하	(89)	60.4	15.2	61.8	21.5	19.5	21.6
	201~300만원 이하	(130)	57.4	20.5	49.0	13.7	35.5	24.0
	301~400만원 이하	(93)	34.4	24.0	55.3	37.8	23.2	25.3
	401~500만원 이하	(61)	42.6	27.4	61.0	19.5	36.5	13.1
	501~600만원 이하	(32)	36.4	27.5	41.6	16.9	51.3	26.3
	601만원 이상	(43)	44.6	21.8	65.9	21.7	23.6	22.4

3)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직장 내 변화 예상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후 직장 내 변화에 대해서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이 78.5%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이다'(75.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이다'(71.9%), '업무 인력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줄어 일이 더 어려울 것이다'(68.3%),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65.5%),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36.0%) 순으로 응답함.

<그림 3-26> 노동시간 단축 시행 후, 직장 내 변화 예상(동의 응답)



Base: 노동시간 단축 제도 미시행 사업장 근로자, N = 664, 단위: %

응답자 특성

✔ 대체로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표 3-31> 직장 내 변화_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664)**	**75.7**	**17.8**	**57.9**	**24.3**	**20.6**	**3.7**
성별	남성	(415)	72.5	16.3	56.2	27.5	23.8	3.8
	여성	(249)	80.7	20.2	60.5	19.3	15.8	3.5
연령	19~29세	(87)	70.8	22.5	48.2	29.2	24.8	4.4
	30~39세	(141)	76.3	16.6	59.7	23.7	18.8	4.9
	40~49세	(169)	78.3	21.0	57.3	21.7	19.1	2.6
	50~59세	(166)	77.5	16.0	61.5	22.5	20.1	2.4
	60세 이상	(101)	72.7	12.2	60.5	27.3	22.6	4.7
거주 지역	서울	(143)	79.3	21.5	57.8	20.7	17.7	3.0
	인천/경기	(205)	75.6	16.6	58.9	24.4	21.6	2.9
	대전/세종/충청	(67)	67.0	19.4	47.6	33.0	24.6	8.4
	광주/전라	(57)	80.6	17.3	63.3	19.4	16.5	2.9
	대구/경북	(64)	71.4	22.1	49.3	28.6	24.2	4.4
	부산/울산/경남	(95)	73.9	11.9	62.0	26.1	22.6	3.5
	강원/제주	(33)	84.1	14.7	69.4	15.9	14.1	1.8
직업	농/임/어업	(12)	83.0	0.0	83.0	17.0	9.3	7.7
	자영업	(81)	65.9	16.7	49.3	34.1	29.5	4.6
	판매/영업/서비스직	(63)	71.8	14.4	57.4	28.2	25.5	2.7
	생산/기능/노무직	(68)	74.1	15.4	58.7	25.9	16.3	9.6
	사무/관리/전문직	(440)	78.0	19.4	58.6	22.0	19.3	2.7
고용 형태	정규직	(460)	76.6	19.2	57.4	23.4	19.8	3.6
	비정규직	(71)	82.8	17.2	65.6	17.2	14.5	2.7
	해당없음	(133)	68.7	13.4	55.4	31.3	27.0	4.3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55)	70.6	14.8	55.8	29.4	22.4	7.0
	50인~300인 미만	(225)	78.0	17.3	60.7	22.0	17.8	4.1
	5인~50인 미만	(235)	78.0	21.3	56.7	22.0	19.5	2.5
	5인 미만 사업장	(149)	70.6	14.2	56.5	29.4	25.8	3.5

응답자 특성

- 여성(79.8%)이 남성(66.5%)에 비해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이라는 비율이 높음.
-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의율이 더 높음.

<표 3-32> 직장 내 변화_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664)**	**71.9**	**17.2**	**54.7**	**28.1**	**24.2**	**4.0**
성별	남성	(415)	66.5	14.5	52.0	33.5	28.4	5.1
	여성	(249)	79.8	21.1	58.7	20.2	17.9	2.3
연령	19~29세	(87)	69.8	22.3	47.5	30.2	26.2	4.0
	30~39세	(141)	76.6	17.8	58.9	23.4	18.6	4.8
	40~49세	(169)	75.3	18.8	56.5	24.7	22.0	2.8
	50~59세	(166)	70.1	15.4	54.7	29.9	26.5	3.4
	60세 이상	(101)	63.1	10.8	52.3	36.9	31.4	5.6
거주 지역	서울	(143)	75.3	21.7	53.7	24.7	20.4	4.2
	인천/경기	(205)	72.4	14.9	57.5	27.6	22.7	4.9
	대전/세종/충청	(67)	71.9	17.8	54.1	28.1	22.4	5.7
	광주/전라	(57)	76.0	17.3	58.8	24.0	24.0	0.0
	대구/경북	(64)	70.9	23.5	47.4	29.1	29.1	0.0
	부산/울산/경남	(95)	62.0	12.4	49.6	38.0	32.5	5.5
	강원/제주	(33)	73.7	10.6	63.1	26.3	22.7	3.5
직업	농/임/어업	(12)	70.6	25.6	45.0	29.4	20.1	9.3
	자영업	(81)	58.7	17.3	41.3	41.3	34.7	6.6
	판매/영업/서비스직	(63)	76.4	17.8	58.6	23.6	18.5	5.1
	생산/기능/노무직	(68)	65.5	11.3	54.2	34.5	28.7	5.8
	사무/관리/전문직	(440)	74.4	17.7	56.8	25.6	22.7	2.9
고용 형태	정규직	(460)	72.8	16.9	55.9	27.2	23.4	3.8
	비정규직	(71)	78.0	19.6	58.4	22.0	19.8	2.2
	해당없음	(133)	65.0	16.9	48.2	35.0	29.5	5.5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55)	59.4	11.5	47.9	40.6	32.4	8.1
	50인~300인 미만	(225)	71.7	17.4	54.3	28.3	23.6	4.7
	5인~50인 미만	(235)	75.3	18.0	57.3	24.7	22.0	2.7
	5인 미만 사업장	(149)	71.6	17.8	53.8	28.4	25.2	3.2

응답자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와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동의율이 높음.

<표 3-33> 직장 내 변화_급여가 줄어들 것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664)**	**78.5**	**27.3**	**51.2**	**21.5**	**19.5**	**1.9**
성별	남성	(415)	78.5	28.6	49.9	21.5	19.7	1.8
	여성	(249)	78.6	25.5	53.2	21.4	19.3	2.1
연령	19~29세	(87)	76.2	34.3	41.8	23.8	20.8	3.0
	30~39세	(141)	72.7	24.8	47.9	27.3	23.5	3.7
	40~49세	(169)	78.4	21.8	56.5	21.6	21.0	0.7
	50~59세	(166)	81.5	28.9	52.6	18.5	16.9	1.6
	60세 이상	(101)	85.6	31.5	54.1	14.4	13.5	0.9
거주 지역	서울	(143)	73.6	26.9	46.7	26.4	24.9	1.5
	인천/경기	(205)	77.5	22.3	55.2	22.5	20.1	2.4
	대전/세종/충청	(67)	82.3	38.4	44.0	17.7	16.5	1.2
	광주/전라	(57)	78.1	21.7	56.4	21.9	21.9	0.0
	대구/경북	(64)	83.3	24.4	59.0	16.7	12.2	4.4
	부산/울산/경남	(95)	85.2	39.0	46.2	14.8	12.2	2.6
	강원/제주	(33)	71.7	19.8	51.9	28.3	28.3	0.0
직업	농/임/어업	(12)	78.4	9.3	69.1	21.6	9.3	12.4
	자영업	(81)	86.6	31.8	54.8	13.4	13.4	0.0
	판매/영업/서비스직	(63)	79.5	28.4	51.1	20.5	18.8	1.8
	생산/기능/노무직	(68)	81.8	31.0	50.8	18.2	17.3	0.9
	사무/관리/전문직	(440)	76.5	26.4	50.2	23.5	21.3	2.2
고용 형태	정규직	(460)	76.6	26.9	49.6	23.4	21.2	2.2
	비정규직	(71)	81.0	26.1	55.0	19.0	16.8	2.1
	해당없음	(133)	84.2	29.4	54.8	15.8	14.9	0.9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55)	69.9	29.1	40.8	30.1	24.2	5.9
	50인~300인 미만	(225)	81.5	34.1	47.4	18.5	18.0	0.5
	5인~50인 미만	(235)	74.8	21.6	53.2	25.2	22.6	2.6
	5인 미만 사업장	(149)	83.6	25.5	58.1	16.4	14.9	1.5

응답자 특성

✔ 30대 이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34> 직장 내 변화_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664)**	**65.5**	**11.9**	**53.6**	**34.5**	**31.5**	**2.9**
성별	남성	(415)	65.0	11.4	53.7	35.0	32.1	2.8
	여성	(249)	66.3	12.8	53.5	33.7	30.6	3.1
연령	19~29세	(87)	69.8	20.1	49.7	30.2	26.8	3.4
	30~39세	(141)	69.0	17.6	51.3	31.0	28.7	2.4
	40~49세	(169)	62.9	6.5	56.5	37.1	35.3	1.8
	50~59세	(166)	63.9	10.7	53.2	36.1	32.2	3.8
	60세 이상	(101)	63.1	6.6	56.5	36.9	33.0	3.9
거주 지역	서울	(143)	69.3	13.8	55.5	30.7	27.2	3.4
	인천/경기	(205)	64.1	8.4	55.7	35.9	33.7	2.2
	대전/세종/충청	(67)	63.2	11.8	51.4	36.8	35.5	1.2
	광주/전라	(57)	68.4	12.6	55.8	31.6	27.7	3.9
	대구/경북	(64)	63.0	7.8	55.2	37.0	35.6	1.4
	부산/울산/경남	(95)	65.1	19.0	46.1	34.9	30.9	4.0
	강원/제주	(33)	63.7	13.3	50.4	36.3	29.2	7.1
직업	농/임/어업	(12)	58.1	0.0	58.1	41.9	41.9	0.0
	자영업	(81)	62.8	7.8	55.0	37.2	29.1	8.1
	판매/영업/서비스직	(63)	65.7	7.1	58.6	34.3	32.5	1.8
	생산/기능/노무직	(68)	73.2	14.9	58.3	26.8	24.3	2.5
	사무/관리/전문직	(440)	65.1	13.3	51.8	34.9	32.5	2.4
고용 형태	정규직	(460)	65.2	12.3	52.9	34.8	32.6	2.2
	비정규직	(71)	69.2	13.6	55.6	30.8	26.7	4.1
	해당없음	(133)	64.6	9.7	54.9	35.4	30.6	4.8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55)	57.0	11.5	45.4	43.0	39.1	4.0
	50인~300인 미만	(225)	67.7	16.8	50.9	32.3	30.0	2.2
	5인~50인 미만	(235)	66.1	10.5	55.6	33.9	30.4	3.5
	5인 미만 사업장	(149)	64.8	7.0	57.8	35.2	32.5	2.7

응답자 특성

✔ 대체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표 3-35> 직장 내 변화_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664)**	**36.0**	**6.2**	**29.8**	**64.0**	**50.9**	**13.1**
성별	남성	(415)	35.1	6.2	28.9	64.9	49.9	15.0
	여성	(249)	37.4	6.2	31.2	62.6	52.4	10.2
연령	19~29세	(87)	37.6	7.4	30.2	62.4	43.5	18.9
	30~39세	(141)	30.7	5.8	24.9	69.3	53.7	15.6
	40~49세	(169)	38.3	6.5	31.8	61.7	52.1	9.5
	50~59세	(166)	41.0	3.8	37.2	59.0	47.2	11.8
	60세 이상	(101)	30.8	8.4	22.5	69.2	57.6	11.6
거주 지역	서울	(143)	35.0	8.5	26.4	65.0	51.2	13.8
	인천/경기	(205)	38.6	6.1	32.5	61.4	48.4	13.0
	대전/세종/충청	(67)	36.7	4.5	32.2	63.3	54.9	8.4
	광주/전라	(57)	43.0	10.1	32.9	57.0	47.6	9.3
	대구/경북	(64)	33.2	5.4	27.8	66.8	56.3	10.5
	부산/울산/경남	(95)	27.5	2.6	25.0	72.5	52.5	20.0
	강원/제주	(33)	38.2	3.9	34.3	61.8	48.2	13.5
직업	농/임/어업	(12)	30.3	9.3	21.0	69.7	44.0	25.7
	자영업	(81)	30.5	5.8	24.7	69.5	56.5	13.0
	판매/영업/서비스직	(63)	44.9	10.7	34.2	55.1	50.0	5.1
	생산/기능/노무직	(68)	41.8	2.6	39.1	58.2	38.3	19.9
	사무/관리/전문직	(440)	34.9	6.0	28.9	65.1	52.1	12.9
고용 형태	정규직	(460)	35.0	5.4	29.5	65.0	51.2	13.8
	비정규직	(71)	45.4	8.0	37.4	54.6	40.9	13.6
	해당없음	(133)	34.2	7.8	26.4	65.8	55.7	10.2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55)	38.5	8.0	30.5	61.5	45.6	15.9
	50인~300인 미만	(225)	33.3	3.3	30.0	66.7	52.4	14.2
	5인~50인 미만	(235)	41.1	8.6	32.6	58.9	45.9	13.0
	5인 미만 사업장	(149)	30.6	5.9	24.7	69.4	59.1	10.4

응답자 특성

✔ 정규직 근로자와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36> 직장 내 변화_업무 인력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줄어 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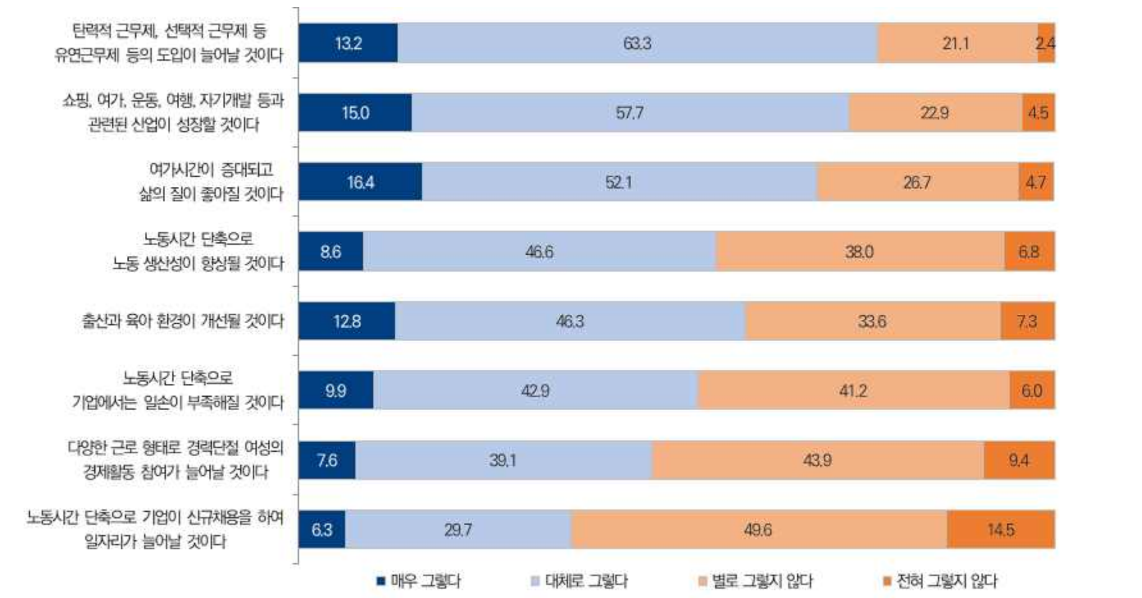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664)**	**68.3**	**17.8**	**50.5**	**31.7**	**28.8**	**2.9**
성별	남성	(415)	70.8	20.4	50.3	29.2	26.7	2.5
	여성	(249)	64.7	13.8	50.8	35.3	31.8	3.6
연령	19~29세	(87)	66.1	17.4	48.7	33.9	27.1	6.8
	30~39세	(141)	66.5	20.1	46.5	33.5	31.8	1.7
	40~49세	(169)	65.0	11.8	53.2	35.0	31.4	3.6
	50~59세	(166)	69.9	20.6	49.3	30.1	29.6	0.5
	60세 이상	(101)	76.7	21.0	55.7	23.3	19.9	3.3
거주 지역	서울	(143)	68.4	21.1	47.3	31.6	28.8	2.8
	인천/경기	(205)	62.9	16.9	46.0	37.1	34.1	3.0
	대전/세종/충청	(67)	78.4	15.3	63.1	21.6	20.4	1.2
	광주/전라	(57)	68.8	10.8	58.0	31.2	27.8	3.4
	대구/경북	(64)	73.0	12.3	60.7	27.0	25.1	1.9
	부산/울산/경남	(95)	72.7	22.7	50.0	27.3	24.4	2.9
	강원/제주	(33)	58.5	23.1	35.3	41.5	33.9	7.7
직업	농/임/어업	(12)	49.8	0.0	49.8	50.2	40.9	9.3
	자영업	(81)	71.8	21.8	50.1	28.2	22.9	5.2
	판매/영업/서비스직	(63)	64.9	13.1	51.8	35.1	33.3	1.8
	생산/기능/노무직	(68)	75.4	22.0	53.4	24.6	22.1	2.5
	사무/관리/전문직	(440)	67.7	17.7	50.0	32.3	29.7	2.6
고용 형태	정규직	(460)	68.8	17.3	51.4	31.2	28.6	2.6
	비정규직	(71)	59.8	18.7	41.1	40.2	37.2	3.0
	해당없음	(133)	71.7	18.9	52.7	28.3	24.3	4.0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55)	57.1	17.0	40.1	42.9	38.9	4.0
	50인~300인 미만	(225)	73.3	21.4	51.9	26.7	24.7	2.0
	5인~50인 미만	(235)	64.2	16.3	47.9	35.8	32.5	3.3
	5인 미만 사업장	(149)	72.0	14.9	57.1	28.0	24.7	3.2

3.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가.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종합)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탄력 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76.5%가 '그렇다'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는 '쇼핑, 여가, 운동, 여행, 자기개발 등과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72.7%),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68.5%), '출산과 육아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59.1%),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55.2%),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질 것이다'(52.8%), '다양한 근로 형태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46.7%),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36.0%) 순임.

<그림 3-27>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Base: 전체, N = 1,145, 단위: %

-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1.9%p)를 제외한 7개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소폭 상승함.

<표 3-37>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1~2차 비교)

(단위: 명, %)

	차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등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	'19.06.	75.9	13.3	62.6	24.3	20.7	3.6
	'19.10.	76.5	13.2	63.3	23.5	21.1	2.4
쇼핑, 여가, 운동, 여행, 자기계발 등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19.06.	69.1	13.8	55.3	31.0	24.5	6.5
	'19.10.	72.7	15.0	57.7	27.4	22.9	4.5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19.06.	67.5	17.6	49.9	32.6	27.9	4.7
	'19.10.	68.5	16.4	52.1	31.4	26.7	4.7
출산과 육아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19.06.	56.1	12.8	43.3	44.0	35.6	8.4
	'19.10.	59.1	12.8	46.3	40.9	33.6	7.3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19.06.	57.1	10.6	46.5	43.0	36.8	6.2
	'19.10.	55.2	8.6	46.6	44.8	38.0	6.8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질 것이다	'19.06.	49.0	9.8	39.2	51.0	43.8	7.2
	'19.10.	52.8	9.9	42.9	47.2	41.2	6.0
다양한 근로 형태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19.06.	44.4	7.8	36.6	55.7	45.9	9.8
	'19.10.	46.7	7.6	39.1	53.3	43.9	9.4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19.06.	35.3	6.8	28.5	64.9	51.5	13.4
	'19.10.	36.0	6.3	29.7	64.1	49.6	14.5

응답자 특성

-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함.
- 근로자 중에서는 '사무/관리/전문직'(56.6%) 종사자가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38> 사회・경제적 변화_노동생산성 향상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145)**	**55.3**	**8.6**	**46.6**	**44.7**	**38.0**	**6.8**
성별	남성	(607)	51.5	8.3	43.2	48.5	38.8	9.8
	여성	(538)	59.2	8.9	50.2	40.8	37.2	3.7
연령	19~29세	(193)	67.5	14.5	53.0	32.5	27.8	4.7
	30~39세	(213)	56.4	11.1	45.3	43.6	35.7	8.0
	40~49세	(244)	56.9	6.9	50.0	43.1	39.6	3.5
	50~59세	(303)	51.3	7.2	44.1	48.7	41.7	7.0
	60세 이상	(192)	42.8	3.1	39.7	57.2	45.3	11.8
거주 지역	서울	(221)	57.8	10.0	47.7	42.2	35.4	6.8
	인천/경기	(362)	57.9	10.3	47.5	42.1	35.6	6.5
	대전/세종/충청	(118)	52.3	7.1	45.1	47.7	38.1	9.6
	광주/전라	(99)	56.6	6.9	49.7	43.4	40.2	3.2
	대구/경북	(114)	53.3	6.4	46.9	46.7	42.7	4.0
	부산/울산/경남	(181)	51.8	7.3	44.6	48.2	40.1	8.1
	강원/제주	(50)	45.5	6.7	38.8	54.5	43.7	10.8
직업	농/임/어업	(12)	48.8	9.3	39.6	51.2	41.9	9.3
	자영업	(81)	45.2	3.6	41.5	54.8	43.2	11.6
	판매/영업/서비스직	(74)	51.5	2.3	49.2	48.5	44.9	3.6
	생산/기능/노무직	(86)	48.2	12.8	35.4	51.8	41.3	10.5
	사무/관리/전문직	(556)	56.6	9.0	47.6	43.4	37.1	6.3
	전업주부	(183)	54.8	7.3	47.5	45.2	38.5	6.7
	학생	(52)	66.5	12.7	53.8	33.5	27.2	6.2
	무직/퇴직/기타	(101)	58.7	11.3	47.4	41.3	36.0	5.4

응답자 특성

- ✔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시간 증대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 근로자 중에는 ‘판매/영업/서비스직’(72.8%)과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70.2%)의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음.

<표 3-39> 사회・경제적 변화_여가시간 증대 및 삶의 질 개선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145)**	**68.6**	**16.4**	**52.1**	**31.4**	**26.7**	**4.7**
성별	남성	(607)	65.2	14.6	50.5	34.8	28.8	6.0
	여성	(538)	72.1	18.3	53.8	27.9	24.6	3.3
연령	19~29세	(193)	77.0	21.0	56.0	23.0	18.7	4.3
	30~39세	(213)	74.5	21.5	53.0	25.5	21.6	3.9
	40~49세	(244)	69.0	16.4	52.5	31.0	26.8	4.3
	50~59세	(303)	64.6	11.3	53.2	35.4	29.8	5.6
	60세 이상	(192)	56.9	12.4	44.5	43.1	37.7	5.4
거주 지역	서울	(221)	72.6	18.4	54.2	27.4	23.7	3.8
	인천/경기	(362)	69.9	19.2	50.7	30.1	25.4	4.7
	대전/세종/충청	(118)	67.6	9.7	57.9	32.4	26.9	5.5
	광주/전라	(99)	74.6	15.2	59.4	25.4	21.7	3.7
	대구/경북	(114)	64.7	16.7	48.1	35.3	33.7	1.5
	부산/울산/경남	(181)	62.1	13.0	49.1	37.9	30.5	7.5
	강원/제주	(50)	62.1	18.6	43.5	37.9	31.8	6.1
직업	농/임/어업	(12)	43.4	9.3	34.1	56.6	47.3	9.3
	자영업	(81)	54.7	13.2	41.5	45.3	35.8	9.5
	판매/영업/서비스직	(74)	72.8	13.0	59.7	27.2	24.0	3.3
	생산/기능/노무직	(86)	58.1	9.0	49.1	41.9	34.6	7.2
	사무/관리/전문직	(556)	70.2	17.7	52.5	29.8	26.4	3.4
	전업주부	(183)	66.0	13.7	52.2	34.0	28.9	5.2
	학생	(52)	83.7	22.3	61.4	16.3	10.1	6.2
	무직/퇴직/기타	(101)	73.8	22.6	51.2	26.2	21.3	5.0

응답자 특성

- 40대(64.2%)와 50대(62.4%)에서 출산과 육아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비율이 높음.
- 직업별로는 '전업주부'(61.4%)와 '학생'(61.3%)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40> 사회・경제적 변화_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145)**	**59.1**	**12.8**	**46.3**	**40.9**	**33.6**	**7.3**
성별	남성	(607)	57.1	12.5	44.6	42.9	33.9	9.0
	여성	(538)	61.2	13.0	48.2	38.8	33.3	5.5
연령	19~29세	(193)	56.3	18.8	37.5	43.7	32.3	11.5
	30~39세	(213)	54.2	12.3	41.9	45.8	36.8	9.0
	40~49세	(244)	64.2	12.1	52.0	35.8	28.7	7.1
	50~59세	(303)	62.4	9.9	52.5	37.6	31.7	5.9
	60세 이상	(192)	56.7	11.1	45.6	43.3	40.7	2.6
거주 지역	서울	(221)	67.1	18.8	48.3	32.9	25.6	7.3
	인천/경기	(362)	60.9	11.9	49.0	39.1	31.3	7.8
	대전/세종/충청	(118)	52.2	9.2	43.0	47.8	39.8	8.0
	광주/전라	(99)	65.1	14.4	50.7	34.9	29.4	5.5
	대구/경북	(114)	59.5	11.9	47.7	40.5	35.5	5.0
	부산/울산/경남	(181)	51.2	8.7	42.4	48.8	39.4	9.5
	강원/제주	(50)	40.0	13.5	26.5	60.0	56.7	3.3
직업	농/임/어업	(12)	50.4	0.0	50.4	49.6	49.6	0.0
	자영업	(81)	51.4	12.8	38.6	48.6	38.4	10.2
	판매/영업/서비스직	(74)	59.8	12.6	47.2	40.2	36.8	3.4
	생산/기능/노무직	(86)	52.3	11.2	41.0	47.7	38.4	9.3
	사무/관리/전문직	(556)	60.1	13.1	47.0	39.9	31.9	8.0
	전업주부	(183)	61.4	12.4	49.1	38.6	33.6	5.0
	학생	(52)	61.3	19.9	41.4	38.7	26.6	12.1
	무직/퇴직/기타	(101)	59.8	10.3	49.5	40.2	35.3	4.9

응답자 특성

- 60대에서 '신규 채용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율이 31.1%로 가장 낮음.
- '농/임/어업' 종사자에서 위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88.3%로 다른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높으며, '판매/영업/서비스직'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함.

<표 3-41> 사회 · 경제적 변화_기업의 신규채용으로 일자리 증가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145)**	**36.0**	**6.3**	**29.7**	**64.0**	**49.6**	**14.5**
성별	남성	(607)	33.6	8.0	25.6	66.4	48.0	18.4
	여성	(538)	38.5	4.7	33.8	61.5	51.2	10.3
연령	19~29세	(193)	38.8	7.0	31.7	61.2	42.1	19.1
	30~39세	(213)	36.8	10.0	26.8	63.2	48.1	15.1
	40~49세	(244)	37.5	6.6	30.9	62.5	52.6	9.9
	50~59세	(303)	35.1	3.4	31.7	64.9	51.3	13.6
	60세 이상	(192)	31.1	5.1	25.9	68.9	53.6	15.4
거주 지역	서울	(221)	39.7	10.3	29.4	60.3	46.8	13.5
	인천/경기	(362)	36.0	5.7	30.3	64.0	47.5	16.5
	대전/세종/충청	(118)	28.0	4.8	23.2	72.0	59.2	12.8
	광주/전라	(99)	47.7	6.7	41.0	52.3	47.3	5.0
	대구/경북	(114)	36.2	4.6	31.6	63.8	50.5	13.3
	부산/울산/경남	(181)	32.9	4.5	28.5	67.1	47.7	19.4
	강원/제주	(50)	23.3	6.5	16.8	76.7	63.0	13.7
직업	농/임/어업	(12)	11.7	0.0	11.7	88.3	74.9	13.3
	자영업	(81)	24.5	2.5	22.0	75.5	55.8	19.7
	판매/영업/서비스직	(74)	50.5	3.9	46.6	49.5	41.5	8.0
	생산/기능/노무직	(86)	27.2	7.5	19.8	72.8	50.0	22.8
	사무/관리/전문직	(556)	36.0	7.2	28.9	64.0	49.1	14.8
	전업주부	(183)	35.2	5.2	29.9	64.8	52.8	12.0
	학생	(52)	41.1	10.1	31.1	58.9	42.1	16.8
	무직/퇴직/기타	(101)	41.6	6.1	35.5	58.4	48.4	10.0

응답자 특성

✔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해 '판매/영업/서비스직'은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53.1%)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 종사자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62.8%)이 비교적 높음.

<표 3-42> 사회・경제적 변화_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145)**	**46.7**	**7.6**	**39.1**	**53.3**	**43.9**	**9.4**
성별	남성	(607)	45.8	8.5	37.3	54.2	42.7	11.4
	여성	(538)	47.6	6.6	41.0	52.4	45.1	7.3
연령	19~29세	(193)	41.2	9.2	32.0	58.8	45.1	13.7
	30~39세	(213)	49.0	11.0	38.0	51.0	41.1	9.9
	40~49세	(244)	50.7	8.7	42.0	49.3	41.5	7.7
	50~59세	(303)	50.1	4.2	45.9	49.9	41.1	8.8
	60세 이상	(192)	40.4	5.2	35.3	59.6	52.8	6.8
거주 지역	서울	(221)	52.5	8.5	43.9	47.5	36.3	11.2
	인천/경기	(362)	47.9	9.6	38.3	52.1	42.7	9.4
	대전/세종/충청	(118)	45.0	6.3	38.7	55.0	45.0	10.0
	광주/전라	(99)	58.3	7.7	50.6	41.7	35.2	6.6
	대구/경북	(114)	41.6	6.2	35.4	58.4	52.8	5.5
	부산/울산/경남	(181)	40.0	5.3	34.6	60.0	48.5	11.5
	강원/제주	(50)	26.0	2.8	23.2	74.0	67.1	6.9
직업	농/임/어업	(12)	27.2	0.0	27.2	72.8	68.2	4.6
	자영업	(81)	37.2	4.6	32.6	62.8	52.2	10.7
	판매/영업/서비스직	(74)	53.1	10.6	42.5	46.9	38.8	8.1
	생산/기능/노무직	(86)	48.7	7.8	41.0	51.3	38.9	12.3
	사무/관리/전문직	(556)	47.7	7.3	40.4	52.3	42.6	9.8
	전업주부	(183)	44.1	8.1	36.0	55.9	49.9	6.0
	학생	(52)	40.3	12.7	27.6	59.7	44.3	15.3
	무직/퇴직/기타	(101)	53.2	6.2	47.0	46.8	38.6	8.3

응답자 특성

✔ 40대(77.1%)에서 '쇼핑, 여가, 운동, 여행, 자기개발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43> 사회·경제적 변화_쇼핑, 여가, 운동, 여행, 자기개발 관련 산업 성장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145)**	**72.6**	**15.0**	**57.7**	**27.4**	**22.9**	**4.5**
성별	남성	(607)	70.7	15.9	54.9	29.3	23.2	6.1
	여성	(538)	74.6	14.1	60.5	25.4	22.5	2.9
연령	19~29세	(193)	75.6	18.7	56.9	24.4	20.4	4.0
	30~39세	(213)	72.9	15.1	57.8	27.1	21.2	5.9
	40~49세	(244)	77.1	15.4	61.7	22.9	18.8	4.1
	50~59세	(303)	73.2	12.8	60.4	26.8	21.5	5.4
	60세 이상	(192)	62.0	13.0	49.0	38.0	35.3	2.8
거주 지역	서울	(221)	75.1	18.3	56.8	24.9	19.5	5.5
	인천/경기	(362)	73.6	15.4	58.2	26.4	23.2	3.1
	대전/세종/충청	(118)	66.2	10.4	55.8	33.8	27.4	6.3
	광주/전라	(99)	84.2	13.0	71.2	15.8	13.4	2.4
	대구/경북	(114)	70.5	16.8	53.8	29.5	24.5	5.0
	부산/울산/경남	(181)	66.1	13.7	52.4	33.9	27.1	6.7
	강원/제주	(50)	72.7	12.5	60.2	27.3	26.1	1.2
직업	농/임/어업	(12)	78.4	24.7	53.7	21.6	13.9	7.7
	자영업	(81)	57.8	12.5	45.3	42.2	37.9	4.3
	판매/영업/서비스직	(74)	82.2	17.1	65.1	17.8	15.5	2.3
	생산/기능/노무직	(86)	63.2	9.7	53.4	36.8	27.1	9.8
	사무/관리/전문직	(556)	73.8	14.3	59.5	26.2	22.1	4.1
	전업주부	(183)	69.2	13.8	55.4	30.8	26.0	4.9
	학생	(52)	76.1	23.3	52.8	23.9	18.5	5.4
	무직/퇴직/기타	(101)	81.2	18.9	62.3	18.8	16.1	2.7

응답자 특성

- 여성보다(49.1%) 남성(56.2%)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음.
- '판매/영업/서비스직'(65.2%)에서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직/퇴직/기타'(60.9%)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표 3-44> 사회・경제적 변화_기업의 일손 부족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145)**	**52.8**	**9.9**	**42.9**	**47.2**	**41.2**	**6.0**
성별	남성	(607)	56.2	12.9	43.3	43.8	37.2	6.6
	여성	(538)	49.1	6.8	42.4	50.9	45.4	5.5
연령	19~29세	(193)	50.3	10.2	40.1	49.7	36.6	13.1
	30~39세	(213)	46.6	8.3	38.3	53.4	46.2	7.3
	40~49세	(244)	51.7	7.3	44.3	48.3	43.3	5.0
	50~59세	(303)	56.5	12.6	43.9	43.5	41.9	1.6
	60세 이상	(192)	59.0	11.0	48.0	41.0	37.1	3.9
거주 지역	서울	(221)	53.3	9.7	43.6	46.7	39.3	7.5
	인천/경기	(362)	52.7	11.1	41.6	47.3	41.5	5.8
	대전/세종/충청	(118)	53.4	12.6	40.8	46.6	40.5	6.1
	광주/전라	(99)	44.5	9.8	34.7	55.5	54.7	0.8
	대구/경북	(114)	48.2	8.3	39.9	51.8	44.5	7.3
	부산/울산/경남	(181)	58.7	7.4	51.3	41.3	35.6	5.7
	강원/제주	(50)	55.8	7.6	48.2	44.2	32.8	11.4
직업	농/임/어업	(12)	59.8	0.0	59.8	40.2	30.9	9.3
	자영업	(81)	56.5	11.5	45.0	43.5	38.0	5.5
	판매/영업/서비스직	(74)	65.2	2.3	62.9	34.8	32.5	2.3
	생산/기능/노무직	(86)	52.3	12.6	39.7	47.7	41.2	6.5
	사무/관리/전문직	(556)	53.8	10.4	43.4	46.2	40.0	6.2
	전업주부	(183)	50.3	11.3	39.0	49.7	47.4	2.3
	학생	(52)	53.0	9.9	43.1	47.0	31.4	15.7
	무직/퇴직/기타	(101)	39.1	8.0	31.1	60.9	52.5	8.4

응답자 특성

- 연령이 높을수록 '유연근무제 등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자영업' 종사자는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이 42.6%로 비교적 높음.

<표 3-45> 사회·경제적 변화_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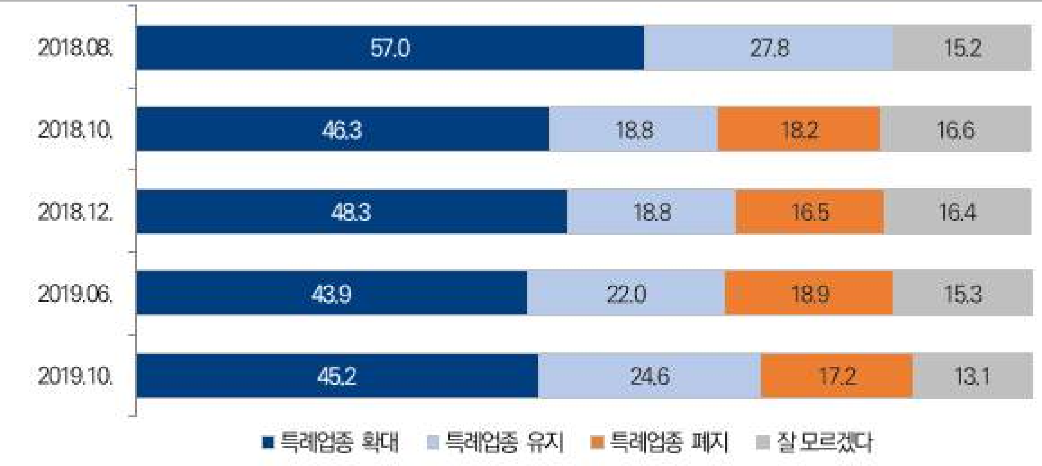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①+②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145)**	**76.5**	**13.2**	**63.3**	**23.5**	**21.1**	**2.4**
성별	남성	(607)	74.9	14.8	60.0	25.1	21.9	3.2
	여성	(538)	78.2	11.5	66.6	21.8	20.3	1.5
연령	19~29세	(193)	71.3	14.9	56.4	28.7	24.1	4.6
	30~39세	(213)	72.8	16.0	56.8	27.2	24.6	2.6
	40~49세	(244)	78.0	11.9	66.1	22.0	20.4	1.7
	50~59세	(303)	79.5	12.8	66.7	20.5	18.2	2.3
	60세 이상	(192)	80.8	10.3	70.4	19.2	18.7	0.5
거주지역	서울	(221)	77.1	13.1	64.1	22.9	21.1	1.8
	인천/경기	(362)	77.4	13.7	63.7	22.6	20.0	2.6
	대전/세종/충청	(118)	70.4	13.0	57.4	29.6	25.9	3.7
	광주/전라	(99)	83.9	15.1	68.7	16.1	15.3	0.8
	대구/경북	(114)	78.5	12.9	65.6	21.5	19.7	1.8
	부산/울산/경남	(181)	71.5	12.2	59.3	28.5	24.8	3.7
	강원/제주	(50)	79.7	10.8	68.9	20.3	20.3	0.0
직업	농/임/어업	(12)	81.5	0.0	81.5	18.5	18.5	0.0
	자영업	(81)	57.4	6.8	50.6	42.6	38.1	4.5
	판매/영업/서비스직	(74)	81.7	8.6	73.1	18.3	14.8	3.5
	생산/기능/노무직	(86)	71.4	14.7	56.6	28.6	24.0	4.6
	사무/관리/전문직	(556)	78.3	13.9	64.3	21.7	20.0	1.7
	전업주부	(183)	78.2	12.3	65.9	21.8	21.0	0.7
	학생	(52)	74.3	17.9	56.4	25.7	17.6	8.1
	무직/퇴직/기타	(101)	78.8	16.5	62.3	21.2	19.5	1.7

나. 특례업종 제도에 대한 의견[2)]

- 특례업종 제도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을 추가해서 특례업종을 늘려야 한다’의 비율이 45.2%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5개 특례업종을 유지해야 한다’(24.6%),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5개 특례업종을 폐지해야한다’(17.2%) 순임.
- ’19년 6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을 추가해서 특례업종을 늘려야 한다’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개선을 위해 5개 특례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3%p, 1.4%p 상승함.
  - 현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을 추가해서 특례업종을 늘려야 한다 :
    43.9%(’19.06.) → 45.2%(’19.10.)
  -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개선을 위해 5개 특례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
    22.0%(’19.06.) → 24.6%(’19.10.)

<그림 3-28> 특례업종 제도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단위: %
N = 1,027(’18.12.) - 2,000(’19.06.) - 1,145(’19.10.)

2) 2018년 10월 조사에서 특례업종 폐지 응답 보기를 추가함

응답자 특성

- 50대 이상에서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을 추가해서 특례업종을 늘려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농/임/어업'(65.1%) 종사자와 '자영업'(53.0%) 종사자의 경우 '특례업종을 늘려야 한다'는 비율이 높음.

<표 3-46> 특례업종 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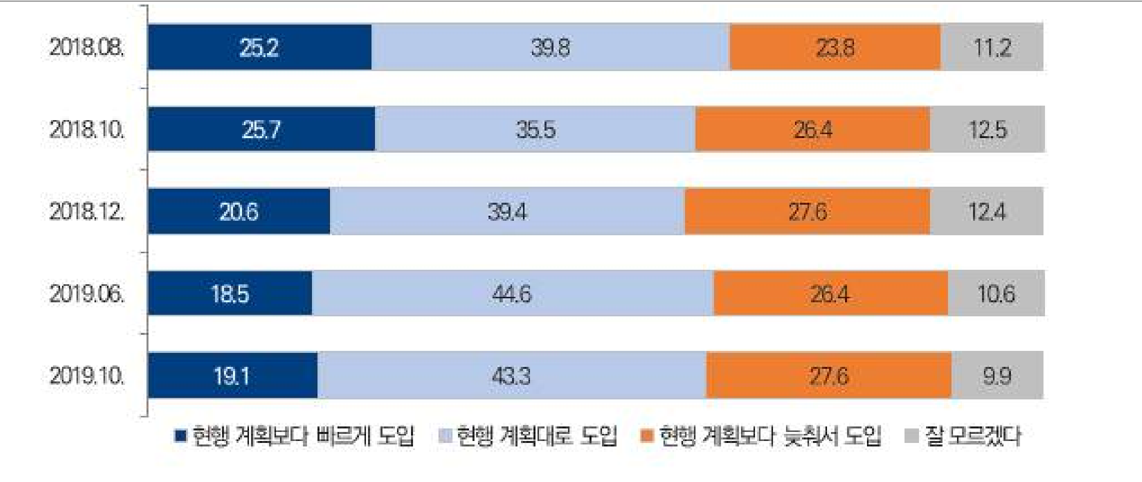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특례업종 유지	특례업종 확대	특례업종 폐지	잘 모르겠다
전체		**(1,145)**	**24.6**	**45.2**	**17.2**	**13.1**
성별	남성	(607)	23.5	50.0	16.5	10.0
	여성	(538)	25.7	40.2	17.8	16.3
연령	19~29세	(193)	24.1	41.2	18.7	16.0
	30~39세	(213)	24.4	42.7	18.5	14.4
	40~49세	(244)	26.1	40.8	24.2	9.0
	50~59세	(303)	24.9	48.6	12.8	13.7
	60세 이상	(192)	22.8	53.8	10.7	12.7
거주지역	서울	(221)	28.7	41.1	16.9	13.3
	인천/경기	(362)	25.6	43.4	17.8	13.2
	대전/세종/충청	(118)	19.7	50.9	16.2	13.2
	광주/전라	(99)	29.1	43.7	16.7	10.5
	대구/경북	(114)	17.6	43.0	23.9	15.5
	부산/울산/경남	(181)	22.1	51.3	14.2	12.4
	강원/제주	(50)	24.7	49.3	12.8	13.1
직업	농/임/어업	(12)	25.6	65.1	9.3	0.0
	자영업	(81)	20.0	53.0	9.9	17.1
	판매/영업/서비스직	(74)	24.8	42.1	16.6	16.5
	생산/기능/노무직	(86)	23.3	43.4	17.6	15.7
	사무/관리/전문직	(556)	27.4	44.8	18.4	9.4
	전업주부	(183)	22.2	43.6	16.4	17.9
	학생	(52)	24.3	42.5	19.8	13.3
	무직/퇴직/기타	(101)	18.1	47.2	16.6	18.0

나.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한 의견

- 중소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43.3%가 '현행 계획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해야한다'(27.6%), '현행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19.1%) 순임.
- '19년 6월 조사와 비슷한 수준임.

<그림 3-29>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

- ✓ 연령이 높을수록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현행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음.
-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54.9%,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8.0%가 '현행 계획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표 3-47>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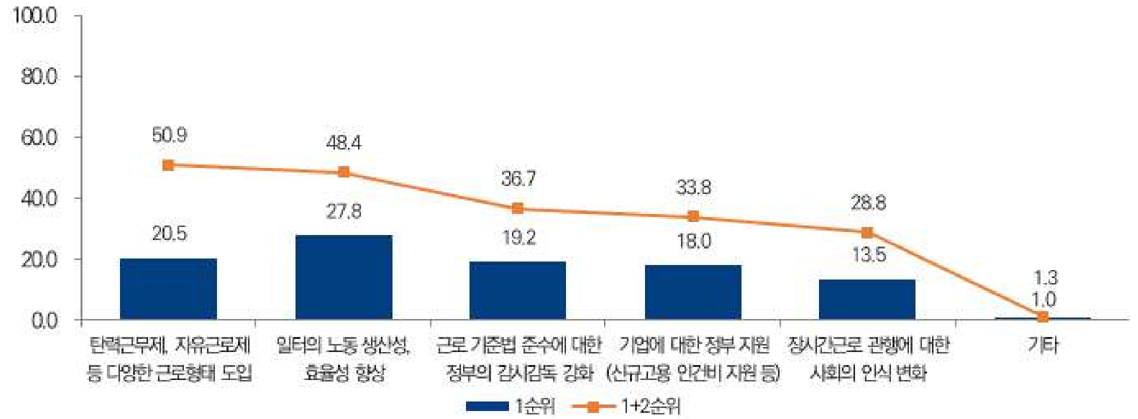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현행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	현행 계획대로 도입	현행 계획보다 늦춰서 도입	잘 모르겠다
전체		**(1,145)**	**19.1**	**43.3**	**27.6**	**9.9**
성별	남성	(607)	17.8	41.5	31.6	9.2
	여성	(538)	20.5	45.2	23.6	10.7
연령	19~29세	(193)	26.6	46.2	17.6	9.6
	30~39세	(213)	26.9	42.1	19.5	11.5
	40~49세	(244)	19.8	49.1	21.7	9.4
	50~59세	(303)	13.7	43.7	34.0	8.6
	60세 이상	(192)	7.9	33.1	47.9	11.0
직업	농/임/어업	(12)	0.0	50.4	49.6	0.0
	자영업	(81)	16.3	25.6	44.7	13.4
	판매/영업/서비스직	(74)	19.8	41.2	31.2	7.8
	생산/기능/노무직	(86)	11.7	42.1	31.3	14.9
	사무/관리/전문직	(556)	21.0	46.7	24.1	8.3
	전업주부	(183)	15.7	41.7	31.6	11.0
	학생	(52)	20.6	48.7	17.8	12.9
	무직/퇴직/기타	(101)	23.7	39.8	25.2	11.3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200)	18.9	54.9	19.4	6.8
	50인~300인 미만	(225)	20.9	38.0	34.0	7.1
	5인~50인 미만	(235)	20.7	44.3	24.3	10.7
	5인 미만 사업장	(149)	14.4	35.9	36.1	13.6
제도 시행 여부	시행하고 있음	(145)	21.0	53.8	20.3	5.0
	시행하지 않음	(33)	17.1	65.4	14.0	3.6
	잘모름	(22)	8.9	46.3	21.9	22.9
	해당되지 않음	(945)	19.2	40.9	29.4	10.6

다.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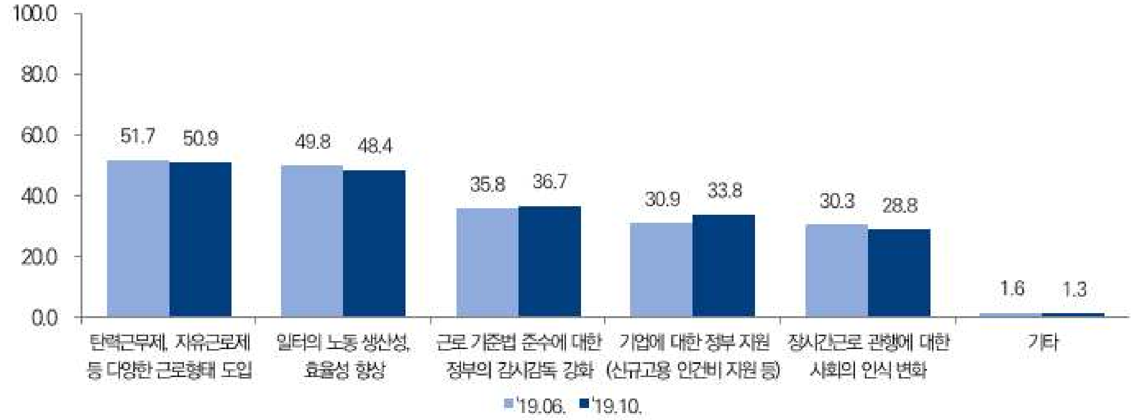
-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탄력 근무제, 자유 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일터의 노동 생산성, 효율성 향상' 48.4%, '근로 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 36.7%,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등)' 33.8%, '장시간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28.8% 순임.
- '19년 6월 조사 대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응답 비율이 2.9%p 상승함.

<그림 3-30>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순위문항)



Base: 전체, N = 1,145, 단위: %

<그림 3-31>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1+2순위 종합, 1~2차 비교)



Base: 전체, 단위: %
N = 2,000('19.06.) - 1,145('19.10.)

응답자 특성

- ✔ 40대 이하에서는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 50대 이상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이 가장 높은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음.

<표 3-48>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1+2순위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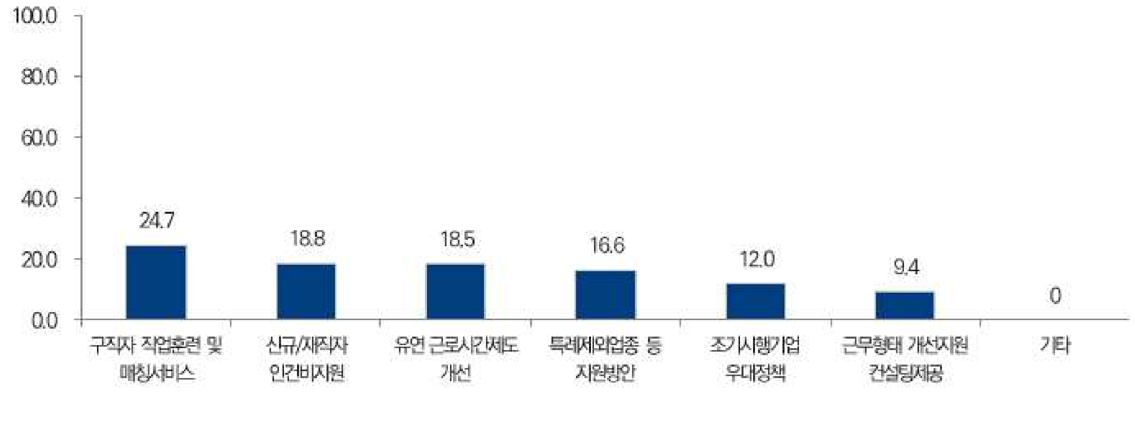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노동 생산성 향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사회의 인식변화	기타
전체		**(1,145)**	**48.4**	**33.8**	**36.7**	**50.9**	**28.8**	**1.3**
성별	남성	(607)	49.6	36.4	36.1	48.2	28.0	1.7
	여성	(538)	47.2	31.2	37.4	53.7	29.6	1.0
연령	19~29세	(193)	40.2	41.1	44.8	43.3	29.5	1.0
	30~39세	(213)	38.1	37.2	44.5	47.8	31.2	1.2
	40~49세	(244)	50.3	32.2	36.6	44.7	35.1	1.1
	50~59세	(303)	57.2	30.9	28.4	54.8	27.8	0.9
	60세 이상	(192)	55.1	27.5	29.9	66.5	18.1	2.9
직업	농/임/어업	(12)	57.2	26.6	51.0	31.1	34.2	0.0
	자영업	(81)	51.7	50.3	27.0	51.3	19.8	0.0
	판매/영업/서비스직	(74)	47.2	38.0	40.3	49.3	25.3	0.0
	생산/기능/노무직	(86)	56.7	37.2	36.7	39.9	25.4	4.1
	사무/관리/전문직	(556)	45.4	35.1	37.9	50.0	30.8	0.8
	전업주부	(183)	52.2	24.7	32.7	62.6	26.1	1.6
	학생	(52)	44.0	33.4	43.9	51.5	27.2	0.0
	무직/퇴직/기타	(101)	51.3	26.9	35.7	46.7	35.1	4.3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200)	44.4	33.3	39.5	52.5	29.0	1.3
	50인~300인 미만	(225)	45.0	39.3	36.4	50.7	27.5	1.0
	5인~50인 미만	(235)	49.4	41.1	36.9	41.9	29.9	0.7
	5인 미만 사업장	(149)	52.5	31.3	35.7	51.4	28.2	1.0
제도 시행 여부	시행하고 있음	(145)	47.4	29.2	38.0	55.5	28.7	1.1
	시행하지 않음	(33)	44.0	42.7	42.4	48.9	22.0	0.0
	잘모름	(22)	27.2	43.7	44.0	40.1	40.9	4.2
	해당되지 않음	(945)	49.3	33.9	36.1	50.6	28.8	1.3

라.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3)

-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위한 구직자 직업 훈련 확대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24.7%)를 가장 많이 꼽음.
- 그 다음으로는 '기업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18.8%),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개선'(18.5%), '특례제외업종 등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업종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16.6%),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12.0%), '근무형태 개선 지원 등 컨설팅 제공(일터혁신 컨설팅 등)'(9.4%) 순임.

<그림 3-32>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Base: 전체, N = 1,145, 단위: %

3) '19년 10월 조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개선' 보기를 추가함.

응답자 특성

✔ '5인~50인 미만'(23.4%)과 '50인~300인 미만'(25.5%) 사업장 근로자는 '신규 및 재직자 인건비 지원'이 가장 높은 반면,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27.0%)과 5인 미만(32.5%) 사업장 근로자는 '구직자 직업 훈련 및 매칭'이 가장 높음.

<표 3-49>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단위: 명, %)

		사례수	인건비 지원	컨설팅 제공	직업훈련 및 매칭	특례제외 업종 등 지원방안	조기 시행기업 우대정책	유연 근로제 개선
전체		**(1,145)**	**18.8**	**9.4**	**24.7**	**16.6**	**12.0**	**18.5**
성별	남성	(607)	22.4	9.3	25.3	14.7	13.1	15.2
	여성	(538)	15.1	9.5	24.1	18.5	10.9	22.0
연령	19~29세	(193)	20.9	9.7	24.8	15.7	13.4	15.6
	30~39세	(213)	19.6	7.7	20.6	17.7	14.0	20.5
	40~49세	(244)	21.0	9.2	25.3	15.5	12.3	16.7
	50~59세	(303)	18.4	9.6	27.9	16.8	10.5	16.8
	60세 이상	(192)	13.2	11.1	23.9	17.4	9.8	24.6
직업	농/임/어업	(12)	0.0	18.9	41.7	16.2	15.4	7.7
	자영업	(81)	10.0	8.4	31.7	28.1	7.5	14.3
	판매/영업/서비스직	(74)	21.0	9.1	28.1	14.3	8.0	19.4
	생산/기능/노무직	(86)	37.0	13.9	23.8	9.3	6.2	9.8
	사무/관리/전문직	(556)	19.7	8.5	22.6	15.2	15.6	18.3
	전업주부	(183)	16.4	10.4	21.8	19.8	7.0	24.6
	학생	(52)	18.8	11.2	19.6	25.1	8.4	17.0
	무직/퇴직/기타	(101)	11.4	7.5	35.0	12.0	14.0	20.1
직장 규모	300인 이상/공공기관	(200)	17.6	8.3	27.0	11.9	16.0	19.2
	50인~300인 미만	(225)	25.5	7.7	24.9	16.7	11.3	13.9
	5인~50인 미만	(235)	23.4	11.9	16.7	16.7	13.7	17.5
	5인 미만 사업장	(149)	11.6	8.8	32.5	18.2	11.0	17.9
제도 시행 여부	시행하고 있음	(145)	20.2	5.3	25.6	12.7	15.4	20.8
	시행하지 않음	(33)	14.1	11.1	44.7	10.8	11.1	8.2
	잘모름	(22)	7.3	22.5	9.3	8.3	26.8	25.7
	해당되지 않음	(945)	19.1	9.6	24.2	17.6	11.1	18.4

[부록] 설문지

주요 정책 시계열조사(노동시간 단축)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지난 6월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의 후속 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과제이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제2차 국민 의견**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설문 응답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문항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시고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각 분야의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밝혀주신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차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주관기관]	[수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hri 현대리서치컨설팅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리서치컨설팅 박성훈 연구원 연락처: 02-3218-9646, FAX: 02-3444-8715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정질문

선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선문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선문3. 귀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만 19세 미만, 만 70세 이상 면접 중단

① 19~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선문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농/임/어업	→ 선문5로 이동
② 자영업	→ 선문5로 이동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 선문5로 이동
④ 생산/기능/노무직	→ 선문5로 이동
⑤ 사무/관리/전문직	→ 선문5로 이동
⑥ 전업주부	→ 문1로 이동
⑦ 학생	→ 문1로 이동
⑧ 무직/퇴직/기타	→ 문1로 이동

선문5.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	→ 선문6으로 이동
② 고용주: 1명 이상을 고용하여 내 사업을 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	→ 선문7로 이동
③ 자영자: 고용한 사람이 없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	→ 선문7로 이동
④ 특수고용근로자: 보험모집인, 레미콘 및 화물 지입차량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가전 A/S 기사 등과 같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 선문7로 이동

선문6.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선문7. 귀하의 직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②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③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④ 5인 미만 사업장

선문8. **(선문4의 ①~⑤ 응답자만)** 귀하는 평소 1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 평일 근무와 연장 근무, 휴일 연장근로를 모두 합해서 말씀해주세요. ※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10시간 한 경우 50시간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1주일 평균 [   ] 시간

Part 1.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문1. 귀하는 '일'과 '개인 또는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이 더 중요하다
② 개인 또는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
③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

문2.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은 편이다
② 적정한 수준이다
③ 많은 편이다

문3.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쪽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십니까?

① 임금이 줄어도 자유로운 내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좋다
② 자유시간이 적어도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느는 게 좋다
③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1순위	2순위

문4. 귀하가 직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① 일자리 안정성　② 높은 소득
③ 사회적 인정　④ 장래 발전 가능성
⑤ 나의 적성　⑥ 일의 재미
⑦ 자율성　⑧ 일-생활의 균형
⑨ 인간관계　⑩ 기타(________________)

Part 2. 노동시간 단축 실태

A.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인지도 등 (모든 응답자 해당 설문)

문5.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점차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주 52시간제>
주52시간제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외에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주 68시간까지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었으며,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유통업, 사회복지업, 노선버스 등도 7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업체에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는 보았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③ 들어본 적이 없다

문6. 귀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잘 모르겠다

문7. '일과 삶의 균형'과 '야근 및 특근 수당'과 중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② 야근 및 특근 수당
③ 잘 모르겠다

문8. **(선문 7의 ①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응답자만)** 귀하가 일하시는 직장은 주 52시간 대상입니다. 귀하의 직장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시행하고 있다
② 시행하지 않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문8-1. **(문 8의 ② 응답자만)** 귀하의 직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업무가 많을 때는 52시간제를 시행하면 일을 처리할 수 없다
② 인력이 부족해서 52시간제를 시행하면 일을 처리할 수 없다
③ 이유를 모르지만 시행하지 않는다
④ 기타(________________)

문9. **(선문 7의 ②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만)** 귀하가 일하시는 직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귀하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는 보았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③ 들어본 적이 없다

문10. **(선문 7의 ③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만)** 귀하가 일하시는 직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귀하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는 보았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③ 들어본 적이 없다

B.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사업장 근로자

문11.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뒤로 귀하의 노동시간은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① 많이 줄어들었다
② 다소 줄어들었다
③ 큰 변화가 없다
④ 오히려 늘어났다

문12. 귀하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발생한 여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가족과 함께 보냄
② 육아 등 가족 돌봄
③ 가사(집안 일)
④ 집에서 휴식을 취함(TV시청 등)
⑤ 건강증진 또는 건강관리 활동
⑥ 문화/취미/여가/여행 활동
⑦ 자기계발
⑧ 추가적인 경제 활동(알바, 투잡 등)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문12-1. **(문 12의 ⑤, ⑥, ⑦ 응답자만)** 문화/취미, 자기계발 등을 할 경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 13으로 이동)

1순위	2순위

① 문화예술 관람(영화, 공연, 박물관 등) 및
문화예술 참여활동(사진촬영, 미술활동, 댄스 등)
② 스포츠 관람 및 참여 활동
③ 여행 및 관광 활동
④ 게임, 낚시 등 취미・오락 활동
⑤ 외국어 학습 등 자기계발 활동
⑥ 봉사활동, 종교활동, 친구와 만남 등 사회 활동

문12-2. **(문 12의 ①, ②, ③, ④, ⑧, ⑨ 응답자만)** 귀하가 늘어난 시간을 문화/취미/건강/자기계발 등 여가 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문 13으로 이동)

① 집안일 때문에
②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③ 금전적 문제로
④ 여가활동에 관심이 없어서
⑤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문13.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현재 귀하의 삶의 질은,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됩니까?

① 이전보다 좋아졌다 → 문 13-1로 이동
②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 문 14로 이동
③ 이전보다 나빠졌다 → 문 13-2로 이동

문13-1. 이전보다 좋아진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문 14로 이동)

① 근무시간에 효율성이 높아져서
②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③ 개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④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서
⑤ 기타 (________________)

문13-2. 이전보다 나빠진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문 14로 이동)

①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임금이 줄어서
② 비공식 야근을 하는 등 실제 근무시간이 줄지 않아서
③ 추가인력 수급이 어려워 기존 인력의 노동 강도가 세져서
④ 특정 시기 일이 몰리는 경우 일률적 주 52시간 근무가 어려워서
⑤ 기타 (________________)

문14. 다음은 노동시간 단축 도입 이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견입니다.
도입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귀하는 다음 각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후 문 21로 이동)

내 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란
1)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급여가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4)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6) 업무 인력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줄어 일이 더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C. 노동시간 단축 제도 미시행 사업장 근로자

문15. 귀하는 향후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발생한 여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가족과 함께 보냄
② 육아 등 가족 돌봄
③ 가사(집안 일)
④ 집에서 휴식을 취함(TV시청 등)
⑤ 건강증진 또는 건강관리 활동
⑥ 문화/취미/여가/여행 활동
⑦ 자기계발
⑧ 추가적인 경제 활동(알바, 투잡 등)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문15-1. **(문 15의 ⑤, ⑥, ⑦ 응답자만)** 문화/취미, 자기계발 등을 할 경우 어떤 일을 할 예정이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문화예술 관람(영화, 공연, 박물관 등) 및
문화예술 참여활동(사진촬영, 미술활동, 댄스 등)
② 스포츠 관람 및 참여 활동
③ 여행 및 관광 활동
④ 게임, 낚시 등 취미·오락 활동
⑤ 외국어 학습 등 자기계발 활동
⑥ 봉사활동, 종교활동, 친구와 만남 등 사회 활동

문16. 귀하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란
1)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급여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6) 업무 인력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줄어 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Part 3.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의견

문17.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란
1)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출산과 육아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4)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5) 다양한 근로 형태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6) 쇼핑, 여가, 운동, 여행, 자기개발 등과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7)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8) 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등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18.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2018년 7월 1일부터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하여,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만이 특례유지 업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례 유지 업종>
① 육상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수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5개 특례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②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을 추가해서 특례업종을 늘려야 한다
③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5개 특례업종을 폐지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문19.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② 현행 계획대로 도입해야 한다
③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문20.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1주 최대 52시간 단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일터의 노동 생산성, 효율성 향상
②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등)
③ 근로 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
④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⑤ 장시간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

문21.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지원 정책들 중 어떠한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업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② 근무형태 개선 지원 등 컨설팅 제공(일터혁신 컨설팅 등)
③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위한 구직자 직업 훈련 확대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④ 특례제외업종 등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업종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정부 공공조달 시 우대,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시 우대 등)
⑥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개선

Part 4. 응답자 특성

배문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재학) ⑤ 대학원 재학 이상

배문2.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유배우 ③ 기타

배문3. **(배문2의 ② 기혼유배우 응답자만)** 귀하 댁은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배문4.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배문5. 귀하의 한 달 월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500만원 ⑥ 501~600만원
⑦ 601~700만원 ⑧ 701~800만원 ⑨ 801~900만원
⑩ 901~1,000만원 ⑪ 1.001만원 이상 ㊾ 잘 모르겠다

배문6. 귀 댁의 한 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500만원 ⑥ 501~600만원
⑦ 601~700만원 ⑧ 701~800만원 ⑨ 801~900만원
⑩ 901~1,000만원 ⑪ 1.001만원 이상 ㊾ 잘 모르겠다

배문7.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 소유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반전세 포함)
④ 사글세 ⑤ 무상 및 기타

배문8. 귀하는 자신의 이념 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	중도 진보	중도	중도 보수	보수
①	②	③	④	⑤

2019년 주요 정책 시계열조사
노동시간 단축(2차) 일반국민 대상 조사 결과 보고서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발 행 일 | 2019. 11.
조 사 성 별 | (주)현대리서치컨설팅